

KREI

# 에콰도르의 농업 및 화훼산업 동향

채상현 · 염정완 · 정이든 · 곽대영

## 연구 담당

---

채상현 | 전문연구원 | 연구 총괄, 제1, 2, 3, 5, 6장

염정완 | 전문연구원 | 제3, 5장

정이든 | 연구원 | 제2장

곽대영 | 연구원 | 제4, 6장

해외농업시리즈 32: 에콰도르

### 에콰도르의 농업 및 화훼산업 동향

---

등 록 | 제 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4. 11.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 (주)

I S B N | 979-11-6149-738-9 95520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b>1. 서론</b> .....	<b>1</b>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b>2. 에콰도르 농업 개황</b> .....	<b>5</b>
2.1. 에콰도르 경제 동향 .....	5
2.2.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 .....	11
<b>3. 에콰도르 화훼산업 현황</b> .....	<b>21</b>
3.1. 전 세계 화훼 생산 현황과 교역 동향 .....	21
3.2. 에콰도르 화훼산업 현황 .....	29
<b>4. 에콰도르 화훼산업 정책</b> .....	<b>41</b>
4.1. 에콰도르의 농업정책 .....	41
4.2. 에콰도르의 화훼산업 관련 정책 .....	46
<b>5. 한·에콰도르 농축산물 교역 동향</b> .....	<b>53</b>
5.1. 에콰도르의 농식품 교역 및 FTA 추진 현황 .....	53
5.2. 한·에콰도르 농축산물 교역 동향 .....	58
5.3. 한·에콰도르 화훼 교역 동향 .....	65
5.4. 에콰도르산 장미의 가격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67
<b>6. 요약 및 시사점</b> .....	<b>69</b>
<b>참고문헌</b> .....	<b>77</b>

## 제2장

〈표 2-1〉 에콰도르의 지역별 농업 면적 현황(2023년 기준) .....	7
〈표 2-2〉 에콰도르 인구 동향 .....	8
〈표 2-3〉 에콰도르 주요 경제 지표 .....	9
〈표 2-4〉 에콰도르의 산업별 GDP 동향 .....	10
〈표 2-5〉 에콰도르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추이 .....	13
〈표 2-6〉 2023년 에콰도르 다년생 및 단년생 작물의 생산량 .....	14
〈표 2-7〉 에콰도르의 지역별 곡물 생산 동향(2023년 기준) .....	15
〈표 2-8〉 에콰도르의 지역별 가축 사육 동향(2023년 기준) .....	16
〈표 2-9〉 에콰도르의 지역별 과수 생산 동향(2023년 기준) .....	17
〈표 2-10〉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 품목 수출액 동향 .....	18
〈표 2-11〉 에콰도르의 농업 생산자 물가지수(2019~2023년) .....	19

## 제3장

〈표 3-1〉 전 세계 화훼 재배면적 현황 .....	22
〈표 3-2〉 전 세계 절화류/분화류 재배면적 현황 .....	23
〈표 3-3〉 전 세계 구근류 재배면적 현황 .....	24
〈표 3-4〉 전 세계 묘목 재배면적 현황 .....	25
〈표 3-5〉 전 세계 화훼 교역 동향 .....	26
〈표 3-6〉 전 세계 절화 수출 동향 .....	27
〈표 3-7〉 전 세계 분화 수출 동향 .....	28
〈표 3-8〉 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재배면적 .....	31
〈표 3-9〉 최근(2019~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생산 현황 .....	34
〈표 3-10〉 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판매량 .....	35
〈표 3-11〉 에콰도르의 화훼 국가별 수출 현황 .....	37
〈표 3-12〉 에콰도르의 화훼 품목별 수출 현황 .....	38

〈표 3-13〉 2023년 에콰도르 화훼 작물 종류별 수출 현황 .....	39
〈표 3-14〉 2023년 에콰도르 화훼 주요 수출국별 수출 현황 .....	40

## 제4장

〈표 4-1〉 에콰도르 주요 농업정책 연혁 .....	43
〈표 4-2〉 에콰도르 2020-2030 국가 농업정책의 전략적 목표 .....	45
〈표 4-3〉 에콰도르 2020-2030 국가 농업정책의 전략적 축과 구체적 목표 .....	45
〈표 4-4〉 에콰도르 주요 환경 인증 로고 .....	47
〈표 4-5〉 Flor Ecuador 인증 규제 4.0의 주요 목표 .....	49
〈표 4-6〉 Flor Ecuador 인증 취득 절차 .....	49
〈표 4-7〉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인증 취득 절차 .....	51

## 제5장

〈표 5-1〉 에콰도르의 교역 현황 .....	53
〈표 5-2〉 에콰도르의 농식품 수출 상위 10개 국가 및 상품 .....	55
〈표 5-3〉 에콰도르의 농식품 수입 상위 10개 국가 및 상품 .....	56
〈표 5-4〉 한국과 에콰도르의 SECA 체결 동향 .....	58
〈표 5-5〉 한국·에콰도르 SECA 협상 결과 .....	58
〈표 5-6〉 한국과 에콰도르 교역 현황 .....	59
〈표 5-7〉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의 부류별 수입액 변화 .....	60
〈표 5-8〉 에콰도르산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 변화(2023년 기준) .....	62
〈표 5-9〉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농축임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	63
〈표 5-10〉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상위 10개 수출 품목의 수출 동향 .....	64
〈표 5-11〉 한국의 에콰도르산 화훼 품목별 수입 동향 .....	66
〈표 5-12〉 한·에콰도르 SECA 협정에 따른 한국의 에콰도르산 화훼 품목 관세 철폐 일정 .....	66
〈표 5-13〉 에콰도르산과 콜롬비아산 장미(절화)의 수입단가 및 도입추정가격 비교 .....	67

**제2장**

〈그림 2-1〉 에콰도르 지도 ..... 6  
〈그림 2-2〉 에콰도르의 농업 면적 및 농업 고용 비율 ..... 12

**제3장**

〈그림 3-1〉 에콰도르 화훼 재배 기업의 주요 위치 ..... 30

**제4장**

〈그림 4-1〉 에콰도르 주요 농업정책 연혁 ..... 43

**제5장**

〈그림 5-1〉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의 수입 추이 ..... 60

# 1

##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국·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SECA)이 2023년 10월 11일 타결되었으며,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 2015년 4월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 2015년 8월 25일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6년 1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 2016년 11월 제5차 협상 이후 양국 간의 입장 차 등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7월 6년 만에 제6차 협상이 재개되었다.
- 이후 4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2023년 4월 제9차 협상을 끝으로 2023년 9월 27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 2023년 10월 11일에 양국은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공동문에 서명을 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으로 평가받는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6. 15.).
- 2023년 기준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9억 6천 5백만 달러 수준이며, 특히 수출 7억 6천 9백만 달러, 수입 1억 9천 6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인 국가이다. 한편, 농업부문 교역규모는 1천 5백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약 80만 달러 수준이며, 수입은 1천 4백 56만 달러로 농업부문은 무역수지 적자이다.
- 양국 간 관세 철폐율은 우리나라는 96.4%, 에콰도르는 92.8%로 상대측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방률이 높은 편이며, 장미는 25%의 관세가 12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화훼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에콰도르와 경제협력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화훼품목들이 수입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콰도르산 화훼품목이 국내 화훼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 연구의 목적은 한·에콰도르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영향 전망에 필요한 에콰도르의 농업 생산과 교역 동향, 정책 관련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특히, 에콰도르의 농업과 화훼산업의 생산, 교역, 정책 관련 동향을 파악해 에콰도르 화훼산업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 한·에콰도르 FTA 발효에 앞서 향후 추진될 에콰도르산 화훼품목들이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과 경쟁력을 검토하는 데 기반이 되는 연구자료를 생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깊이 있는 국내 화훼산업의 경쟁력 검토 등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에콰도르의 농업과 화훼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내용은 크게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 에콰도르의 화훼산업 현황, 에콰도르의 농업과 화훼산업 관련 정책 동향,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FTA 추진 동향과 한·에콰도르 농축산물 교역 동향으로 나뉜다.
  
- 먼저, 에콰도르 화훼산업의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에콰도르의 국가 개황과 경제 현황, 농업 여건 및 농축산물 생산 현황을 제시하였다.
  - 에콰도르의 국가 개황과 경제 현황, 농업 여건 및 생산 현황의 주요 통계자료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에콰도르의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ia),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FAOSTAT 등을 이용하였다.
  - 에콰도르 교역 관련 주요 통계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FAOSTAT,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Union Fleurs(International Floricultural Trade Association) 통계를 이용하였다.
  
- 주요 통계자료 외에 에콰도르 현지의 화훼산업의 생산 현황과 정책 동향은 위탁연구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 위탁연구는 국내 해외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EC21 R&C에 의뢰하여 2024년 8월 1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 위탁연구는 온라인 조사 및 현지 생산자 단체 조사 인터뷰 등으로 에콰도르 현지의 생산 및 유통, 생산 관련 업체 등을 조사하였으며, 관련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정책 동향을 제시하였다.



# 2

## 에콰도르 농업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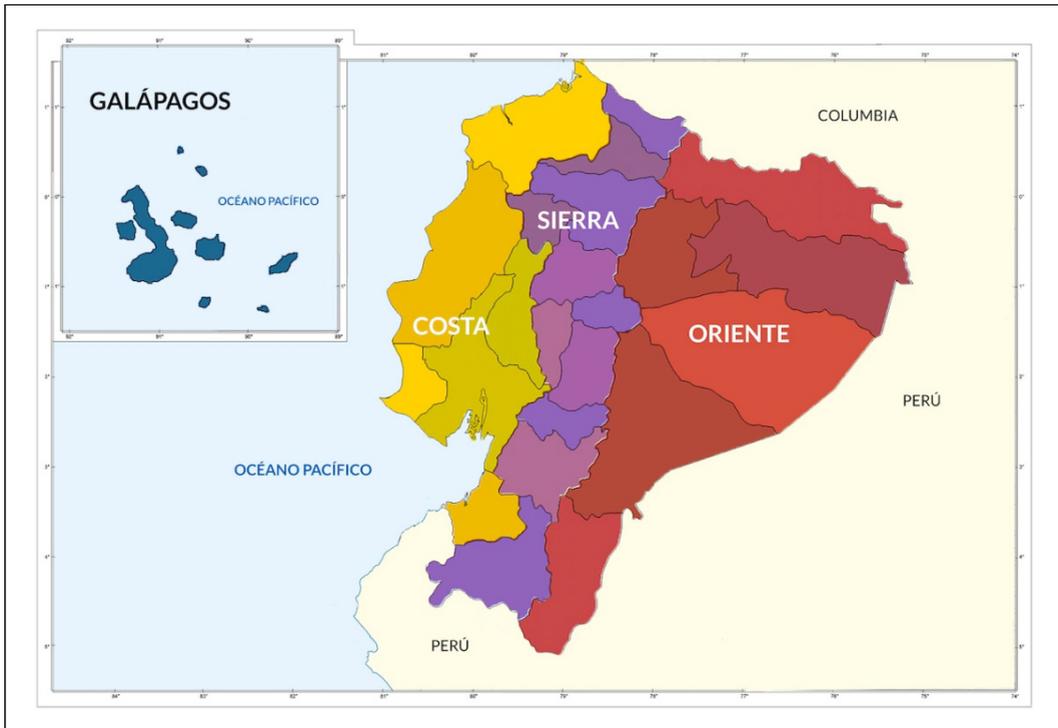
### 2.1. 에콰도르 경제 동향

#### 2.1.1. 에콰도르 국가 개요

- 에콰도르의 정식국명은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 of Ecuador)이며, 남아메리카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고, 페루와 콜롬비아에 인접한 국가이다. 에콰도르의 국토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2,835만 ha로 한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며, 이 중 농업 면적은 약 535만 ha로 국토 면적의 약 18.9%를 차지한다.
- 남아메리카 대륙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국가로, 다양한 지형과 기후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는 서쪽의 태평양 해안 평야 지대 코스타(Costa), 중앙의 고지대 안데스산맥 지역인 시에라(Sierra), 그리고 안데스와 아마존강 상류 사이의 동쪽 경사면인 오리엔테(Oriente)로 크게 3개 지역으로 분리되며, 여기에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특수한 지역이 포함된다. 행정 구역은 총 24개의 주(Provincia)로 나뉜다. 수도는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키토(Quito)이다.
- 태평양 연안의 저지대 및 아마존 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를 보이는 반면, 안데스산맥 고지대

는 연평균 기온이 약 13도로 온난한 편에 속한다(최민정, 2016). 안데스산맥 주변 지역은 일조량과 수자원이 풍부하여 꽃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안규미, 2019).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로 강수량이 많다. 에콰도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화산 활동이 활발하며, 이로 인해 지진과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홍수 등의 자연재해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2-1〉 에콰도르 지도



자료: Brief Information Of Ecuador(<https://briefinformationofecuadorec.wordpress.com/natural-regions-of-ecuador/>), 검색일: 2024. 8. 6.

- 2023년 기준 에콰도르의 농업 면적은 535만 ha이며, 지역별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코스타 지역이 286만 2천 ha로 최대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시에라 지역이 127만 5천 ha, 아마존 지역이 59만 4천 ha를 점유하고 있다.
- 농업적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재배 목초지가 232만 4천 ha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년생 작물 재배지 138만 ha, 단년생 작물 재배지 81만 2천 ha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

한 휴경지가 21만 6천 ha이며, 자연 목초지가 61만 8천 ha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코스타 지역은 다년생 작물(98만 6천 ha) 및 단년생 작물(57만 1천 ha) 재배가 집중되어 있어 농업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에라 지역은 75만 3천 ha의 재배된 목초지가 분포하여 축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 에콰도르의 지역별 농업 면적 현황(2023년 기준)

단위: 천 ha

지역	총	Permanent Crops (다년생 작물)	Temporary Crops (단년생 작물)	Fallow Land (휴경지)	Cultivated Pastures (재배 목초지)	Natural Pastures (자연 목초지)
총합계	5,350	1,380	812	216	2,324	618
코스타 지역 (Costa Region)	2,862	986	571	123	1,182	96
시에라 지역 (Sierra Region)	1,275	237	205	80	753	492
아마존 지역 (Amazon Region)	594	158	36	13	387	29
경계 미확정 구역 (Undelimited Zone)	1	-	0	-	0	1

자료: EC21 R&C(2024);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10. 22.

○ 에콰도르 전체 인구는 이민자 유입 등으로 증가 추세이나,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 에콰도르 전체 인구는 2023년 기준 1,819만 명으로 2013년 1,572만 명 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 2000년대부터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베네수엘라인들의 유입이 시작되면서 현재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베네수엘라 이주민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다(CIA, 2024. 8. 20.).
- 2021년 기준으로 이민자와 난민이 에콰도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2-2〉 에콰도르 인구 동향

구분	2013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명)	15,722,989	16,696,944	17,343,740	17,588,595	17,797,737	18,001,000	18,190,484
전년 대비 성장률(%)	1.5	1.6	1.9	1.4	1.2	1.1	1.1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4. 8. 9.

### 2.1.2. 에콰도르 경제 동향

○ 에콰도르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고 있다.

- 2023년 기준 에콰도르의 국내총생산은 약 1,1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성장하였다. 2017년부터는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은 COVID-19의 영향으로 성장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국내총생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6,533달러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으나, 실질 GDP는 5,796달러로 0.6% 감소하였다.
- 에콰도르의 2023년 수출액은 34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요 수입국의 구매력 약화, 에콰도르 내 연료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생산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WEAREAQUACULTURE, 2024. 8. 22.).
- 2023년 에콰도르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수입액 성장세와 비교하면 현저히 둔화된 수치이다. 주로 정제 석유 제품, 차량 및 운송장비에 대한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Central Bank of Ecuador, 2024).

〈표 2-3〉 에콰도르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감률 (17~23%)
총 GDP(실질, 백만 달러)	104,467	107,479	107,596	95,865	107,435	116,586	118,845	2.2
전년 대비(%)	(7.0)	(2.9)	(0.1)	(-10.9)	(12.1)	(8.5)	(1.9)	-
총인구(천 명)	16,697	17,016	17,344	17,589	17,798	18,001	18,190	1.4
1인당 명목 GDP(달러)	6,257	6,316	6,204	5,450	6,036	6,477	6,533	0.7
전년 대비(%)	(5.3)	(1.0)	(-1.8)	(-12.1)	(10.8)	(7.3)	(0.9)	-
1인당 실질 GDP(달러)	6,012	5,976	5,863	5,331	5,492	5,639	5,796	-0.6
전년 대비(%)	(0.8)	(-0.6)	(-1.9)	(-9.1)	(3.0)	(2.7)	(2.8)	-
수출액(백만 달러)	19,092	21,652	22,330	20,355	26,699	35,380	34,540	10.4
전년 대비(%)	(13.7)	(13.4)	(3.1)	(-8.8)	(31.2)	(32.5)	(-2.4)	-
수입액(백만 달러)	19,844	23,177	22,564	17,918	25,687	33,049	34,210	9.5
전년 대비(%)	(22.6)	(16.8)	(-2.6)	(-20.6)	(43.4)	(28.7)	(3.5)	-
무역수지(백만 달러)	-752	-1,526	-235	2,437	1,012	2,331	330	-

주: 실질 GDP는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하며,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https://ire.finanzas.gob.ec/>), 검색일: 2024. 8. 22.

○ 에콰도르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서비스 산업이며,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작으며, 농업·임업·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이다.

- 2023년 기준 서비스 산업은 63.4%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상품 제조업은 19.4%, 1차산업은 17.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19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17.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제조업은 148억 달러로 13.2%를 차지했으며, 1차산업에 속하는 광업은 102억 달러로 9.1%를 차지했다.
-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건설업(-5.2%)과 기타 서비스(-0.5%)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콰도르의 농림수산업 분야의 경우 2017년 이후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으나, 2023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다소 낮았다.

〈표 2-4〉 에콰도르의 산업별 GDP 동향

단위: 백만 달러(US)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감률 (17~23, %)	2023년 비중
농업·임업·어업	8,255	8,217	8,378	8,039	8,592	8,367	9,124	1.7	8.1%
광업	6,838	8,482	7,912	5,131	9,034	12,144	10,192	6.9	9.1%
1차산업 소계	15,093	16,699	16,290	13,170	17,626	20,511	19,316	4.2	17.2%
제조업	14,554	14,366	13,642	12,407	14,128	15,092	14,792	0.3	13.2%
전기·가스·수도	1,873	1,758	1,997	1,834	1,997	2,070	2,239	3.0	2.0%
건설업	6,474	5,504	5,125	3,618	4,317	4,751	4,695	-5.2	4.2%
상품 제조업 소계	22,901	21,628	20,764	17,859	20,442	21,913	21,726	-0.9	19.4%
도매 및 소매업	14,404	15,249	15,277	13,602	16,214	18,899	19,083	4.8	17.0%
운송·창고	5,249	5,356	5,586	4,861	5,113	5,365	5,670	1.3	5.1%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1,376	1,431	1,521	1,128	1,379	1,447	1,483	1.3	1.3%
정보통신	2,430	2,567	2,486	2,310	2,292	2,431	2,508	0.5	2.2%
금융 및 보험업	3,840	4,017	4,168	3,970	4,228	5,045	5,187	5.1	4.6%
부동산업	7,376	7,317	7,384	7,277	7,105	7,470	7,740	0.8	6.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7,033	7,769	7,750	6,731	7,405	7,951	8,294	2.8	7.4%
공공행정·안전	7,941	8,020	8,003	7,955	7,788	8,170	8,764	1.7	7.8%
교육	5,179	5,371	5,450	5,051	5,135	5,267	5,499	1.0	4.9%
의료 및 복지	3,871	4,111	4,238	4,214	4,339	4,517	4,729	3.4	4.2%
예술·엔터테인먼트 등	1,120	1,087	1,177	1,032	1,108	1,211	1,216	1.4	1.1%
기타 서비스	831	847	913	654	710	782	807	-0.5	0.7%
서비스 산업 소계	60,650	63,142	63,953	58,785	62,816	68,555	70,980	2.7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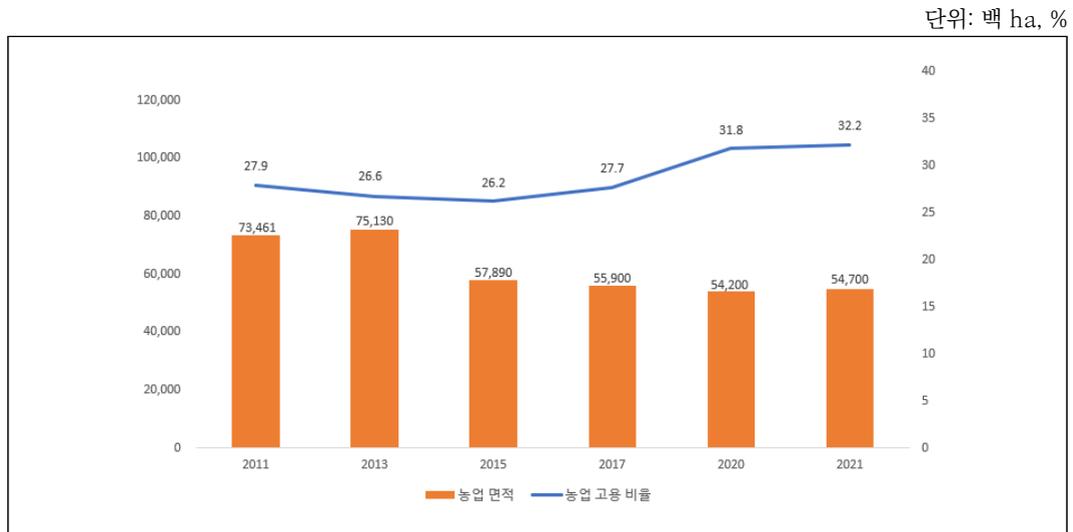
자료: Central Bank of Ecuador(<https://www.bce.fin.ec/en/press-release/ecuadorean-economy-recorded-a-growth-of-2-4-in-2023>), 검색일: 2024. 8. 27.

## 2.2.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

- 에콰도르의 농업은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고대 문명 시기부터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기원전 3,500년 경의 발디비아 문화에서는 초기 농경 사회의 모습이 발견되었다(Staller, 1994).
  - 15세기경 잉카 제국의 영향으로 테라스 농법 등 발전된 농업 기술이 도입되었다 (Smithsonian, 2011. 9. 6.). 이 시기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16세기 초,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에콰도르의 농업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규모 농장 체제가 도입되었고, 유럽의 수요에 맞춘 작물 재배가 시작되면서 이 시기에 바나나, 카카오 등의 작물이 중요한 수출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 19세기 초 독립 이후, 에콰도르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카카오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를 ‘카카오 붐’이라고 부르며, 에콰도르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Henderson, 1997).
  - 20세기 중반 이후 바나나 수출이 급증하면서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성장한다. 이는 농업 부문의 현대화와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 최근에는 화훼산업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유기농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에콰도르 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에콰도르의 농업 면적은 2015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농업 고용 비율은 동일한 시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에콰도르의 농업 면적은 547만 ha로 토지의 과도한 사용과 침식으로 인한 토양 퇴화 등의 영향에 따라 2011년 734만 6천 ha에서 연평균 5.7%씩 감소하였다 (Blackmore et al, 2021).

- 2011년 27.9%였던 에콰도르의 농업 고용 비율은 연평균 2.9%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에콰도르의 농업 면적 및 농업 고용 비율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4. 8. 27.

○ 에콰도르는 다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농업 생산과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에콰도르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축산물과 곡물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관찰되었다.

- 품목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축산 부문에서는 쇠고기가 2022년 3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농축산물 중 최대 생산액을 달성하였다. 비록 연평균 성장률은 0.8%로 완만한 수준이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 수출 작물인 코코아콩과 쿠잉 바나나의 고성장세이다. 이들 품목은 2022년 각각 4억 9천만 달러, 3억 2천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9.4%와 7.1%의 견고한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코코아콩은 고품질 품종으로서의 국제적 인지도와 최근 식물성 초콜릿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박지혜, 2021).

- 한편, 곡물 부문에서는 밀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2년 밀 생산액은 3억 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30.5%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표 2-5〉 에콰도르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US)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18~'22, %)
쇠고기(지육)	3,477	3,512	3,226	3,442	3,596	0.8
바나나	2,313	2,341	2,142	2,377	2,162	-1.7
우유	1,708	1,700	1,689	1,752	1,729	0.3
닭고기(지육)	968	1,097	993	1,088	1,119	3.7
쌀	911	814	892	984	1,027	3.0
코코아콩	346	417	483	445	496	9.4
돼지고기(지육)	524	490	447	461	420	-5.4
옥수수	328	461	415	496	383	4.0
사탕수수	353	434	513	531	371	1.2
쿠팡 바나나	245	282	272	287	323	7.1
밀	105	174	187	224	306	30.5

주: 주요 품목은 2022년 기준 3억 달러 이상인 품목만 제시함.

자료: FAOSTAT Database(<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4. 7. 17.

○ 2023년 기준 에콰도르의 농작물 생산량은 다년생 작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아프리카 팜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며, 단년생 작물은 쌀, 건조 경질 옥수수, 감자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이러한 작물 구성은 에콰도르가 열대작물부터 식량작물까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에콰도르 농업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농업이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에콰도르는 바나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바나나는 716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농업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사탕수수는 625만 톤으로 바나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 아프리카 팜의 경우 약 205만 톤을 생산하여 바나나, 사탕수수 다음으로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아프리카 팜에서 추출되는 팜유는 식용유 및 산업용 원료로 활용되며,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 단년생 작물 중에서는 쌀이 164만 톤으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에콰도르의 주요 식량작물로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건조 경질 옥수수는 141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보였다.
- 감자(26만 톤)와 브로콜리(20만 톤)는 채소류 중 주요 생산 작물로 나타났으며, 카사바(12만 톤)도 상당한 생산량을 기록했다.
- 옥수수의 경우 용도별로 구분되어 생산되고 있는데, 연질 옥수수와 건조 연질 옥수수 등 다양한 형태로 재배되고 있다.

〈표 2-6〉 2023년 에콰도르 다년생 및 단년생 작물의 생산량

단위: 톤

구분	작물명	생산량
다년생 작물	바나나	7,159,816
	사탕수수	6,253,732
	아프리카 팜	2,049,700
	플랜테인	840,599
	사탕수수	805,151
	파인애플	507,987
	카카오	375,719
	오렌지	165,650
단년생 작물	쌀	1,636,349
	건조 경질 옥수수	1,413,382
	감자	262,038
	브로콜리	197,221
	카사바	119,431
	연질 옥수수	54,429
	건조 연질 옥수수	49,490
	리노 토마토	40,079

주: 주요 품목은 2023년 기준 다년생 작물은 10만 톤 이상, 단년생 작물은 4만 톤 이상만 제시함.

자료: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10. 23.

○ 품목별·지역별로 살펴보면, 에콰도르는 주로 코스타 지역에서 옥수수과 쌀을 생산하며, 시에라 지역에서는 감자와 보리 재배가 집중되어 있다.

- 감자 생산은 시에라 지역이 26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99.6%를 차지하고 있다. 시에라 지역에서 감자 생산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지역의 고산 기후가 감자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옥수수의 경우, 코스타 지역이 132만 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93.3%에 해당한다. 시에라 지역은 6만 톤, 아마존 지역은 3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한다. 코스타 지역의 많은 생산량은 이 지역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서 기인한다.
- 보리는 시에라 지역에서 8,517톤, 코스타 지역에서 2톤이 생산되고 있다. 시에라 지역의 높은 보리 생산량은 보리가 고산 지대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다.
- 쌀 생산은 코스타 지역이 163만 톤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약 99.6%를 차지한다. 아마존 지역은 549톤, 시에라 지역은 5,473톤을 생산한다. 코스타 지역의 평야 지대와 풍부한 수자원이 쌀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서 쌀 생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두는 코스타 지역에서만 1만 톤이 생산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대두 재배에 적합하여 이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7〉 에콰도르의 지역별 곡물 생산 동향(2023년 기준)

단위: 톤

구분	시에라 지역 (Sierra Region)	코스타 지역 (Costa Region)	아마존 지역 (Amazon Region)	경계 미확정 구역 (Undelimited Zone)
감자	261,058	980	-	-
옥수수	61,621	1,318,591	33,170	-
보리	8,517	2	-	-
쌀	5,473	1,630,328	549	-
대두	-	13,112	-	-

자료: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8. 29.

○ 에콰도르의 축산업은 지역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소와 돼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 2023년 기준 에콰도르 전체 소 사육 두수의 54.8%를 차지하는 시에라 지역의 소 사육 두수는 204만 마리이다. 코스타 지역은 136만 마리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며, 아마존 지역은 32만 마리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 돼지의 경우 시에라 지역이 67만 마리로 가장 많은 사육 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돼지 사육 두수의 67.9%에 해당한다. 코스타 지역은 28만 마리, 아마존 지역은 4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 기타 축산의 경우, 시에라 지역이 14만 마리, 코스타 지역이 10만 마리, 아마존 지역이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 이러한 지역별 가축 사육 현황은 에콰도르의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각 지역의 농업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에라 지역이 대부분의 가축 사육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넓은 초지와 온화한 기후가 축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8〉 에콰도르의 지역별 가축 사육 동향(2023년 기준)

단위: 마리

구분	시에라 지역 (Sierra Region)	코스타 지역 (Costa Region)	아마존 지역 (Amazon Region)	경계 미확정 구역 (Undelimited Zone)
소	2,039,677	1,363,680	318,957	882
돼지	668,019	280,827	35,154	-
양	539,882	19,250	2,816	-
닭	154,138,489	94,828,456	20,906,224	-
기타 축산	137,940	104,908	17,118	104

자료: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8. 29.

○ 에콰도르의 과수 재배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바나나 생산이 두드러지는 형태를 보인다.

- 바나나는 에콰도르의 주요 과수 작물로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시에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코스타 지역과 아마존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이

는 에콰도르의 다양한 기후대가 바나나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파인애플은 시에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코스타 지역과 아마존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시에라 지역의 높은 생산량은 해당 지역의 특정 기후가 파인애플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아보카도는 주로 시에라 지역에서 재배되며, 코스타 지역에서도 소량 생산되고 있다.
- 망고 생산은 주로 코스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8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스타 지역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망고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에라 지역에서도 272톤의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 내 특정 지역의 기후 조건이 제한적으로나마 망고 재배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에콰도르의 지역별 과수 생산 동향(2023년 기준)

단위: 톤

구분	시에라 지역 (Sierra Region)	코스타 지역 (Costa Region)	아마존 지역 (Amazon Region)	경계 미확정 구역 (Undelimited Zone)
바나나	6,895,349	249,626	14,841	-
파인애플	492,126	13,753	2,109	-
카카오	55,415	297,632	22,672	-
아보카도	25,857	666	-	-
망고	272	78,089	-	-

자료: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8. 29.

○ 에콰도르의 주요 농산물 수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 전통적인 수출 주력 상품인 바나나는 2022년 33억 8,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5.7%를 차지했다. 비록 연평균 증감률은 2.1%로 완만한 수준이나, 에콰도르 농산물 수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코코아콩의 경우 2018년 6억 6,5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 1,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에콰도르의 주요 작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쿠팡 바나나도 2022년 1억 3,7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 또한 냉동 채소(2억 100만 달러)와 커피 추출물(1억 600만 달러) 등 가공 농산물의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에콰도르 농업이 신선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농산물까지 생산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0〉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 품목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US)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18~'22, %)
바나나	3,116	3,185	3,577	3,393	3,386	2.1
기타 유기물질	866	893	844	974	1,057	5.1
코코아콩	665	657	816	819	915	8.3
기타 조제과일	204	191	205	234	275	7.8
냉동 채소	129	147	168	168	201	11.7
팜유	195	127	120	139	195	0.0
쿠킹 바나나	102	125	105	107	137	7.6
기타 과일	37	48	71	94	113	32.4
커피 추출물	69	71	60	62	106	11.4
미제조 담배	70	77	73	85	102	9.9

주: 주요 품목은 2022년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만 제시함.

자료: FAOSTAT Database(<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4. 7. 17.

○ 에콰도르의 전체 농업 부문의 생산자 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sup>1)</sup>는 2019년 111.3에서 2023년 105.28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 농업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유지작물의 PPI는 2019년 148.11에서 2023년 180.9로 상승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섬유작물 역시 2019년 114.58에서 2023년 129.57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 반면 과일의 PPI는 2019년 135.78에서 2020년 135.04로 소폭 하락한 후, 2021년 132.54, 2022년 114.89를 거쳐 2023년 99.4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콩류의 경우 2020년 161.19로 급상승했다가 2021년 122.66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2022년 124.35, 2023년 143.11을 기록했다. 조곡류의 PPI는 2019년 93.37에서 2023년 108.68로 변동했으며, 채소의 경우 2019년 109.84에서 2023년 108.13을 나타냈다.

<sup>1)</sup> 농업 생산자 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이며, 2014~2016년을 기준(100)으로 한 에콰도르 농업의 PPI를 통해 농업 상품군별 생산자 가격의 변화 추이를 파악함.

- 이처럼 전체 농업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다.

〈표 2-11〉 에콰도르의 농업 생산자 물가지수(2019~20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률 (%)
농업 전체	111.3	111.91	110.28	110.06	105.28	-4.3
조곡류	93.37	94.44	97.0	114.2	108.68	-4.8
섬유작물	114.58	125.76	124.14	126.85	129.57	2.1
과일	135.78	135.04	132.54	114.89	99.49	-13.4
유지작물	148.11	149.45	160.19	170.61	180.9	6.0
콩류	131.96	161.19	122.66	124.35	143.11	15.1
채소	109.84	111.6	98.32	102.71	108.13	5.3

자료: EC21 R&C(2024); FAOSTAT Database(<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4. 8. 20.



# 3

## 에콰도르 화훼산업 현황

### 3.1. 전 세계 화훼 생산 현황과 교역 동향

#### 3.1.1. 전 세계 화훼 생산 현황

○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Union Fleurs (International Floricultural Trade Association)의 2023년 세계 화훼재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구근류, 절화류, 분화류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화훼 전체 재배면적은 198만 ha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 세계 화훼 재배면적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52만 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재배면적에서 76.8%를 차지하고 있다.
- 다음으로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가 19만 ha(9.4%), 유럽 17만 ha(8.6%), 브라질, 에콰도르 등을 포함한 기타국 10만 ha(5.3%) 순으로 나타났다.

<sup>2)</sup>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Union Fleurs(International Floricultural Trade Association) 보고서 통계자료는 Eurostat에서 제공하는 유럽연합의 국제 무역 통계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연합 회원 국가와 무역한 나라의 통계만 제공함. 이에 따라 에콰도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에콰도르 화훼 관련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1〉 전 세계 화훼 재배면적 현황

단위: ha, %

구분	화훼 재배면적	비중
아시아/태평양	1,521,100	76.8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186,418	9.4
유럽	180,387	9.1
기타국	93,777	4.7
전체	1,981,682	100.0

주 1) 절화류(cut flowers), 분화류(pot plants), 구근류(bulbs), 묘목(nursery stock)을 포함한 화훼류 전체 재배면적임.

2) 유럽은 EU 소속 회원국(27개국) 중 16개국만 조사된 자료임.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세계 절화류/분화류<sup>3)</sup> 재배면적은 68만 ha로 나타났으며, 전체 재배면적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7.2%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 북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과 비교해서 재배면적 비중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재배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의 절화류/분화류 재배면적은 28만 ha로 세계 재배면적의 41.6%를 차지하고, 중국의 재배면적은 19만 ha로 세계 재배면적의 27.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일본(2.5%), 태국(1.8%) 등의 순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다.
- 아메리카 지역의 절화류/분화류 재배면적은 약 7만 ha로 나타났으며, 세계 재배면적의 10.8%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국가별로 가장 큰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3만 ha) 나타났고, 다음으로 브라질(2만 ha), 멕시코(9천 ha), 콜롬비아(9천 ha), 에콰도르(8천 ha) 순으로 나타났다.
- 유럽의 절화류/분화류 재배면적은 약 6만 ha로 나타났으며, 세계 재배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유럽 국가별로 가장 큰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1만 ha)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8천 ha), 영국(8천 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절화류/분화류 재배면적은 세계 재배면적의 2.5%, 1.2%를 차지한다.

<sup>3)</sup> 절화류/분화류에는 절화류(cut flowers), 절엽류(cut foliage), 분화류(pot plants), 화단용 식물(bedding plants), 다년생 식물(perennials)이 포함되고, 구근류(flowers bulbs), 묘목(nursery stock)은 제외됨.

〈표 3-2〉 전 세계 절화류/분화류 재배면적 현황

단위: ha, 백만 유로

구분	재배면적				생산액	
	시설	노지	전체	기준 연도	생산액	기준 연도
오스트리아	164	259	423	2022	210	2021
벨기에	376	509	885	2022	203	2021
덴마크	223	215	438	2022	352	2021
핀란드	113	25	138	2022	89	2021
프랑스	-	-	4,738	2022	939	2021
독일	1,653	4,610	6,263	2021	1,102	2021
아일랜드	-	-	415	2010	40	2021
이탈리아	5,443	7,282	12,724	2010	1,295	2021
네덜란드	4,210	3,980	8,190	2022	2,828	2021
노르웨이	81	-	81	2020	26	2021
포르투갈	1,591	3,801	5,392	2022	116	2021
폴란드	610	1,090	1,700	2010	216	2021
스페인	3,079	3,005	6,084	2020	995	2021
스웨덴	127	254	381	2020	165	2021
스위스	146	-	146	2022	332	2021
영국	473	7,100	7,573	2021	517	2021
<b>유럽</b>	-	-	<b>55,600</b>	-	<b>9,400</b>	-
이스라엘	1,748	1,000	2,748	2004	-	-
튀르키예	1,651	3,986	5,637	2022	-	-
<b>중동</b>	-	-	<b>8,400</b>	-	-	-
에티오피아	-	-	1,695	2017	244	2022
케냐	-	-	4,039	2012	663	2022
남아공	-	-	11,461	2007	98	2022
<b>아프리카</b>	-	-	<b>17,200</b>	-	<b>1,000</b>	-
호주	330	3,934	4,264	2020/2021	-	-
중국	-	-	188,421	2020	7,739	2018
대만	-	-	4,886	2020	-	-
인도	-	-	282,000	2021/2022	-	-
이란	3,534	2,393	5,927	2021	-	-
일본	-	-	16,795	2020	-	-
한국	-	-	2,405	2022	-	-
말레이시아	-	-	2,554	2021	-	-
태국	-	-	12,324	2013	-	-
베트남	-	-	4,500	2008	-	-
<b>아시아/태평양</b>	-	-	<b>524,000</b>	-	<b>7,700</b>	-
캐나다	682	458	1,140	2022	1,538	2022
미국	7,735	19,045	26,780	2022	3,297	2017
<b>북아메리카</b>	-	-	<b>28,000</b>	-	<b>5,000</b>	-
브라질	-	-	15,600	2022	-	-
콜롬비아	-	-	8,900	2021	1,990	2022
코스타리카	-	-	3,600	2018	126	2022
에콰도르	6,783	1,071	7,854	2022	999	2022
멕시코	1,615	7,767	9,382	2022	-	-
<b>중남미</b>	-	-	<b>45,300</b>	-	<b>1,600</b>	-
<b>전체</b>	-	-	<b>678,500</b>	-	<b>24,700</b>	-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세계 구근류 재배면적은 3만 ha로 나타났으며, 전체 재배면적 중 유럽 지역이 75.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순으로 나타났다.

- 유럽 지역에서 네덜란드의 재배면적이 2만 ha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의 구근류 재배면적은 세계 재배면적의 71.9%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다음으로 프랑스(681ha), 독일(352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유럽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의 재배면적이 4천 ha로 세계 재배면적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4천 ha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미국만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구근류 재배면적은 3천 ha로 세계 재배면적의 11.4%를 차지한다. 그 외 튀르키예에서 구근류가 재배되고 있지만, 재배면적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표 3-3〉 전 세계 구근류 재배면적 현황

단위: ha, 백만 유로

구분	재배면적		생산액	
	재배면적	기준 연도	생산액	기준 연도
벨기에	46	2022	-	-
프랑스	681	2022	-	-
독일	352	2021	-	-
네덜란드	21,839	2022	-	-
스웨덴	87	2020	-	-
<b>유럽</b>	<b>23,005</b>	-	-	-
튀르키예	51	2022	-	-
중국	3,627	2020	31	2018
일본	255	2020	-	-
미국	3,462	2017	70	2017
<b>전체</b>	<b>30,400</b>	-	-	-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세계 묘목 재배면적은 127만 ha로 나타났으며, 전체 재배면적 중 중국이 76.7%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중국의 묘목 재배면적은 98만 ha로 전체 재배면적의 76.7%를 차지하고,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묘목 재배면적은 14만 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지역에서 묘목 재배면적이 가장 넓고, 유럽 지역의 묘목

재배면적은 10만 ha로 전체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 중 가장 넓은 묘목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3만 ha)이고, 다음으로 네덜란드(2만 ha), 독일(2만 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전 세계 묘목 재배면적 현황

단위: ha, 백만 유로

구분	재배면적		생산액	
	재배면적	기준 연도	생산액	기준 연도
오스트리아	1,717	2020	139	2021
벨기에	5,400	2022	382	2021
덴마크	1,866	2022	123	2021
핀란드	288	2022	19	2021
프랑스	11,724	2010	1,189	2021
독일	17,160	2021	1,088	2021
아일랜드	731	2010	50	2021
이탈리아	31,852	2020	1,487	2021
네덜란드	17,790	2022	5,206	2021
노르웨이	115	2018	84	2021
폴란드	7,174	2022	324	2022
스웨덴	516	2020	143	2021
스위스	871	2022	190	2021
영국	4,583	2021	1,325	2021
<b>유럽</b>	<b>101,787</b>	-	<b>11,749</b>	-
튀르키예	3,986	2022	-	-
중국	976,099	2020	9,130	2018
대만	9,631	2020	-	-
이란	2,325	2021	-	-
일본	3,625	2020	-	-
호주	4,832	2020/2021	-	-
태국	1,538	2013	-	-
브라질	13,870	2020	1,490	2021
캐나다	15,630	2022	500	2022
미국	139,596	2017	5,213	2017
<b>유럽 외</b>	<b>1,171,000</b>	-	<b>16,300</b>	-
<b>전체</b>	<b>1,272,787</b>	-	<b>28,049</b>	-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3.1.2. 전 세계 화훼류 교역 동향<sup>4)</sup>

○ 2022년 전 세계 화훼 교역액은 284억 유로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절화 교역액이 60.6%, 분화 교역액이 39.4%를 차지한다.

- 2022년 전 세계 화훼 수출액은 139억 유로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으며, 절화 수출액이 58.3%, 분화 수출액이 41.7%를 차지한다.
- 2022년 전 세계 화훼 수입액은 1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절화 수입액이 62.8%, 분화 수입액이 37.2%를 차지한다.

〈표 3-5〉 전 세계 화훼 교역 동향

단위: 억 유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교역액	전체	241	246	256	243	291	284	-2.5	3.4
	절화	146	147	155	145	176	172	-2.3	3.3
	분화	95	99	101	98	115	112	-2.8	3.4
수출액	전체	123	126	133	122	155	139	-10.3	2.5
	절화	76	77	83	75	95	81	-14.7	1.3
	분화	47	49	50	47	60	58	-3.3	4.3
수입액	전체	118	120	123	121	136	145	6.5	4.3
	절화	70	70	72	70	81	91	12.3	5.4
	분화	48	50	51	51	55	54	-2.2	2.5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품목별 전 세계 화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절화 수출액은 81억 유로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으며, 네덜란드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에콰도르의 절화 수출 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분화 수입액은 58억 유로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가 주로 수출하고 있다.

- 2022년 기준으로 절화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2022년 네덜란드의 절화 수출액은 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전체 절화 수출액의

4)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와 Union Fleurs(International Floricultural Trade Association) 보고서의 에콰도르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의 통계자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한 것이 아님에 따라 다른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6.1%를 차지한다.

- 다음으로 철화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에콰도르(12.0%), 케냐(7.4%), 콜롬비아(5.8%)로 나타났다. 에콰도르, 케냐, 콜롬비아의 2022년 철화 수출액은 각각 10억 유로, 6억 유로, 5억 유로로 에콰도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하였지만, 케냐와 콜롬비아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2.0%, 67.9% 감소했다.
- 2022년 분화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2022년 분화 수출액은 40억 유로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전체 분화 수출액의 69.4%를 차지한다.

〈표 3-6〉 전 세계 철화 수출 동향

단위: 억 유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전체	76	77	83	75	95	81	-14.7	1.3
유럽	41	42	45	38	54	49	-9.3	3.6
네덜란드	38	38	41	34	46	45	-1.5	3.8
벨기에·룩셈부르크	1	1	1	1	1	1	-51.3	-7.1
이탈리아	1	1	1	1	1	1	5.6	5.4
독일	1	1	1	0	1	1	1.9	-3.0
스페인	0	0	1	1	0	0	-3.0	-1.8
덴마크	0	0	0	0	0	0	10.0	9.5
리투아니아	1	1	1	0	1	1	18.2	0.3
<b>중동</b>	<b>1</b>	<b>1</b>	<b>1</b>	<b>1</b>	<b>1</b>	<b>1</b>	<b>-8.3</b>	<b>4.1</b>
이스라엘	1	0	0	1	1	1	-27.9	0.0
튀르키예	0	0	0	0	1	0	-6.0	12.6
<b>아시아</b>	<b>4</b>	<b>4</b>	<b>4</b>	<b>4</b>	<b>4</b>	<b>5</b>	<b>28.6</b>	<b>3.4</b>
중국	1	1	1	1	1	2	27.0	11.0
말레이시아	1	1	1	1	1	1	7.9	-3.1
태국	1	1	1	0	0	1	30.6	0.3
인도	0	0	0	0	0	0	0.0	-5.9
대만	0	0	0	0	0	0	5.6	7.1
베트남	0	0	0	0	1	1	19.2	13.4
한국	0	0	0	0	0	0	-50.0	-25.4

(계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싱가포르	0	0	0	0	0	0	0.0	-7.8
<b>아프리카</b>	<b>7</b>	<b>7</b>	<b>10</b>	<b>10</b>	<b>10</b>	<b>9</b>	<b>-10.0</b>	<b>4.6</b>
케냐	5	5	5	5	6	6	-2.0	4.6
에티오피아	2	2	2	2	2	2	1.9	4.7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1	0	1	1	1.7	8.3
탄자니아	0	0	0	0	0	0	50.0	-3.9
잠비아	0	0	0	0	0	0	-12.5	-4.9
<b>아메리카</b>	<b>22</b>	<b>22</b>	<b>23</b>	<b>22</b>	<b>25</b>	<b>17</b>	<b>-32.0</b>	<b>-5.0</b>
콜롬비아	12	12	13	12	15	5	-67.9	-17.7
에콰도르	8	7	8	7	8	10	24.0	4.5
캐나다	1	1	1	1	1	1	24.6	10.6
미국	0	0	0	0	0	0	13.6	0.8
코스타리카	0	0	0	0	0	0	38.7	8.2
멕시코	0	0	0	0	0	1	75.7	11.9
<b>오세아니아</b>	<b>0</b>	<b>0</b>	<b>0</b>	<b>0</b>	<b>0</b>	<b>0</b>	<b>-7.7</b>	<b>-6.7</b>
호주	0	0	0	0	0	0	0.0	-5.6
뉴질랜드	0	0	0	0	0	0	-10.0	-7.1

주 1) 전체 및 각 합계 수치는 추정치로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2) 유럽은 EU 소속 회원국(27개국) 중 16개국만 조사된 자료임.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표 3-7〉 전 세계 분화 수출 동향

단위: 억 유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b>전체</b>	<b>47</b>	<b>49</b>	<b>50</b>	<b>47</b>	<b>60</b>	<b>58</b>	<b>-3.3</b>	<b>4.3</b>
<b>유럽</b>	<b>47</b>	<b>49</b>	<b>50</b>	<b>47</b>	<b>60</b>	<b>58</b>	<b>-3.3</b>	<b>4.3</b>
네덜란드	31	33	34	32	41	40	-2.9	5.2
벨기에/룩셈부르크	3	3	3	3	4	3	-8.8	3.1
이탈리아	2	2	2	2	3	3	-0.7	6.5
독일	5	6	6	6	6	6	-1.6	3.0
스페인	1	2	2	2	3	3	6.2	13.2
덴마크	3	2	2	2	3	3	-8.1	1.4

주 1) 전체 및 각 합계 수치는 추정치로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2) 유럽은 EU 소속 회원국(27개국) 중 16개국만 조사된 자료임.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3.2. 에콰도르 화훼산업 현황<sup>5)</sup>

### 3.2.1. 에콰도르 화훼산업 현황과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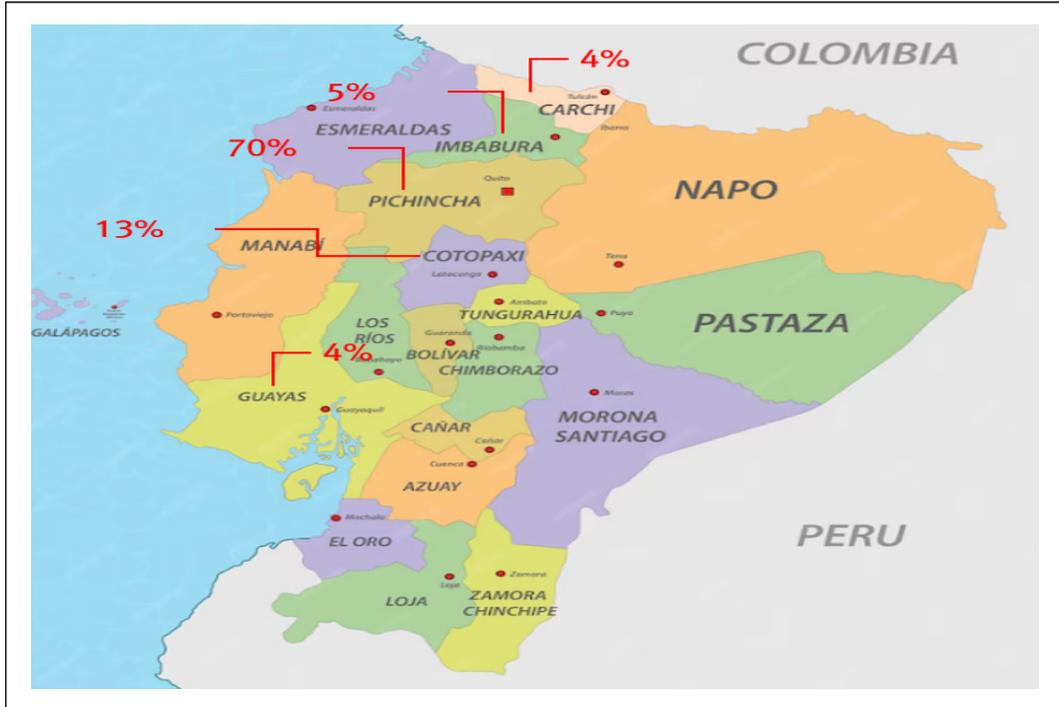
- 에콰도르에서 화훼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장미, 델피니움, 헬리코니아 등의 화훼 작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 에콰도르에서 화훼를 생산하는 지역은 안데스산맥의 시에라 지역으로 안데스산맥은 화산 토양의 풍부함과 하루 중 12시간의 일정한 일조량이 공급됨에 따라 화훼 작물을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 에콰도르에서 화훼산업은 에콰도르 수출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화훼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6)</sup>
  - 에콰도르는 1970년대부터 열대 꽃, 여름 꽃, 장미 등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생산 증가와 함께 화훼 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1990년대부터 인프라 구축과 물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30개 정도에 불과했던 화훼 농장이 2000년까지 35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최근 화훼산업은 에콰도르에서 큰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약 30만 명이 화훼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에라 지역에 약 600개의 화훼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 에콰도르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기업은 2021년 기준 278개이고, 대부분 에콰도르의 피친자주와 코토팍시주에 위치하고 있다(에콰도르 국가금융공사, 2022).
  - 에콰도르의 주요 화훼 생산 지역은 피친자주의 수도인 키토와 피친자주 주요 도시인 카얄베이고 이외 코토팍시주와 통구라우아주에 위치한 암바토, 아수아이주의 주요도시인 쿠엔카 등에서 화훼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꽃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카얄베 지역은 고도가 높고 온대 기후로 장미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sup>5)</sup> 본 절의 내용은 EC21 R&C(2024)의 에콰도르 화훼산업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sup>6)</sup> Floral daily(2024)와 Borgen magazine(2024)을 참고하여 작성함.

- 암바토 지역은 계곡 지형의 비옥한 토양과 관개 시설을 활용하여 화훼 작물을 재배하고, 높은 고도의 시원한 기후로 화훼 생산에 유리하다.
- 쿠엥카 지역은 낮은 고도와 따뜻한 기후로 인해 다양한 화훼 작물을 재배하기 적합하고, 특히 절화 품종 생산에 특화된 지역이다.

〈그림 3-1〉 에콰도르 화훼 재배 기업의 주요 위치



자료: 에콰도르 국가금융공사(2022).

### 3.2.2. 에콰도르 화훼 생산 및 판매 동향

○ 에콰도르에서 화훼는 대부분 온실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재배 면적은 파종 기준 9,464ha(수확 기준 8,736ha)로 온실 면적이 76.9%를 차지한다.

- 2023년 기준 에콰도르에서 연중 화훼 재배에 사용되는 면적은 파종 기준 7,488ha로 전체 재배면적의 79.1%를 차지하고,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배되는 화훼 작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파종 기준 1,976ha로 전체 재배면적의 20.9%를 차지한다.

- 에콰도르에서 연중 재배하는 화훼 작물은 2023년 기준 장미, 자이소필리아, 하이페리 쿼, 리모니움, 카네이션, 기타 영구 꽃이고, 이 중 장미 재배면적이 연중 재배면적의 80.2%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장미는 97.3% 온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 노지에서 생산된다.
- 에콰도르에서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배되는 화훼 작물은 국화, 델피니움, 해바라기, 아스터, 리아트리스 등으로 델피니움이 시즌성 화훼 작물 재배면적의 43.4%를 차지한다.

○ 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생산량은 53.7억 본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온실에서 79.8% 생산되었고 나머지 노지에서 20.2% 생산된다.

- 연중 생산되는 화훼의 2023년 생산량은 43.1억 본으로 전체 화훼 생산량의 80.2%를 차지하고, 이 중 장미 생산량이 연중 화훼 생산량의 84.4%를 차지한다.
- 2023년 장미 생산량은 36.4억 본으로 이 중 온실에서 97.3%인 36.1억 본이 생산되었으며, 노지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화훼 작물의 생산량은 10.6억 본으로 전체 화훼 생산량의 19.8%를 차지하고, 이 중 기타 화훼의 생산량이 63.1%를 차지한다.
- 시즌성 기타 화훼의 2023년 생산량은 6.7억 본으로 78.2%가 노지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21.8%가 온실에서 생산된다.

〈표 3-8〉 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재배면적

단위: ha, 백만 본, %

구분	생산 방법	재배면적		생산량
		파종 기준	수확 기준	
화훼 전체	전체	9,464	8,736	5,372
	온실	7,276	6,845	4,286
	노지	2,188	1,891	1,086
연중 화훼 작물	전체	7,488 (79.1)	6,763 (77.4)	4,311 (80.2)
	온실	6,125 (64.7)	5,697 (65.2)	3,880 (72.2)
	노지	1,363 (14.4)	1,066 (12.2)	430 (8.0)

(계속)

구분	생산 방법	재배면적		생산량
		파종 기준	수확 기준	
장미	전체	6,002 (63.4)	5,590 (64.0)	3,640 (67.8)
	온실	5,842 (61.7)	5,464 (62.5)	3,614 (67.3)
	노지	160 (1.7)	126 (1.4)	27 (0.5)
자이소필리아	전체	162 (1.7)	139 (1.6)	164 (3.0)
	온실	15 (0.2)	13 (0.1)	19 (0.4)
	노지	147 (1.6)	126 (1.4)	144 (2.7)
하이페리쿰	전체	859 (9.1)	758 (8.7)	243 (4.5)
	온실	7 (0.1)	7 (0.1)	7 (0.1)
	노지	852 (9.0)	751 (8.6)	236 (4.4)
리모니움	전체	10 (0.1)	6 (0.1)	6 (0.1)
	온실	6 (0.06)	3 (0.03)	3 (0.06)
	노지	4 (0.04)	3 (0.03)	3 (0.05)
카네이션	전체	100 (1.1)	65 (0.7)	63 (1.2)
	온실	97 (1.0)	62 (0.7)	57 (1.1)
	노지	3 (0.03)	3 (0.03)	7 (0.12)
기타 영구 꽃	전체	355 (3.8)	206 (2.4)	194 (3.6)
	온실	159 (1.7)	149 (1.7)	180 (3.4)
	노지	196 (2.1)	57 (0.7)	13 (0.3)
시즌성 화훼 작물	전체	1,976 (20.9)	1,972 (22.6)	1,062 (19.8)
	온실	1,151 (12.2)	1,148 (13.1)	406 (7.6)
	노지	825 (8.7)	824 (9.4)	656 (12.2)

(계속)

구분	생산 방법	재배면적		생산량
		파종 기준	수확 기준	
아스터	전체	61 (0.6)	61 (0.7)	61 (1.1)
	온실	-	-	-
	노지	61 (0.6)	61 (0.7)	61 (1.1)
국화	전체	70 (0.7)	70 (0.8)	92 (1.7)
	온실	70 (0.7)	70 (0.8)	92 (1.7)
	노지	-	-	-
델피니움	전체	857 (9.1)	857 (9.8)	204 (3.8)
	온실	712 (7.5)	712 (8.2)	164 (3.1)
	노지	145 (1.5)	145 (1.7)	40 (0.7)
해바라기	전체	212 (2.2)	211 (2.4)	33 (0.6)
	온실	77 (0.8)	77 (0.9)	4 (0.07)
	노지	135 (1.4)	134 (1.5)	30 (0.6)
리아트리스	전체	2 (0.02)	2 (0.02)	1 (0.02)
	온실	-	-	-
	노지	2 (0.02)	2 (0.02)	1 (0.02)
기타 화훼	전체	775 (8.2)	772 (8.8)	670 (12.5)
	온실	292 (3.1)	289 (3.3)	146 (2.7)
	노지	484 (5.1)	483 (5.5)	524 (9.8)

주: ( )는 전체 재배면적 및 전체 생산량에서 각 화훼 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9. 3.

○ 최근 5개년 에콰도르의 화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에콰도르의 화훼 생산량은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화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2% 크게 증가하였다.

-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장미의 생산량은 2019년 이후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36.4억 본으로 나타났다.

- 장미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기타 화훼(시즌성)는 2019년 이후 매년 38.9%씩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7.4% 증가하였다.
- 장미, 기타 화훼(시즌성) 외 델피니움, 기타 화훼(연중), 국화, 해바라기의 생산량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하이페리쿰, 안개꽃, 카네이션, 아스터 등은 2019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표 3-9〉 최근(2019~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생산 현황

단위: 백만 분, %

화훼 종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총합계	5,242	3,800	4,416	3,396	5,372	58.2	0.6
장미	3,346 (63.8)	2,558 (67.3)	3,648 (82.6)	2,548 (75.0)	3,640 (67.8)	42.9	2.1
기타 화훼(시즌)	180 (3.4)	167 (4.4)	108 (2.4)	225 (6.6)	670 (12.5)	197.4	38.9
하이페리쿰	549 (10.5)	367 (9.7)	82 (1.9)	56 (1.6)	243 (4.5)	335.4	-18.4
델피니움	196 (3.7)	14 (0.4)	9 (0.2)	18 (0.5)	204 (3.8)	1,058.3	1.0
기타 화훼(연중)	80 (1.5)	140 (3.7)	41 (0.9)	32 (0.9)	194 (3.6)	508.2	24.8
안개꽃	343 (6.5)	215 (5.7)	284 (6.4)	226 (6.7)	164 (3.0)	-27.7	-16.9
국화	28 (0.5)	20 (0.5)	31 (0.7)	32 (0.9)	92 (1.7)	187.4	33.9
카네이션	123 (2.3)	282 (7.4)	143 (3.2)	71 (2.1)	63 (1.2)	-10.2	-15.2
아스터	142 (2.7)	3 (0.1)	15 (0.3)	26 (0.8)	61 (1.1)	129.8	-19.2
해바라기	6 (0.1)	4 (0.1)	27 (0.6)	142 (4.2)	33 (0.6)	-76.4	52.8
리모니움	161 (3.1)	27 (0.7)	12 (0.3)	11 (0.3)	6 (0.1)	-44.4	-55.8
리아트리스	86 (1.6)	2 (0.1)	3 (0.1)	9 (0.3)	1 (0.0)	-86.9	-66.0
진저	-	-	6 (0.1)	-	-	-	-
헬리코니아스	-	-	9 (0.2)	-	-	-	-
아미	-	-	-	0 (0.0)	-	-	-

주 1) ( )는 전체에서 각 화훼 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9. 3.

○ 2023년 기준 에콰도르에서 1.3억 개의 화훼가 판매되었으며, 연중 화훼 작물이 판매량의 78.4%, 시즌성 화훼 작물이 21.6%를 차지한다.

- 화훼는 72.0%가 Bonche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Tabaco 12.8%, Bouquet 12.4%, Full Tabaco 2.8% 순의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 연중 화훼 작물은 Full Tabaco, Tabaco, Bonche 형태로 대부분 판매되는 반면, 시즌성 화훼 작물은 80.5%가 Bouquet 형태로 판매되는 차이가 존재한다.
-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장미의 2023년 판매량은 8.4천만 개로 전체 판매량의 64.1%를 차지하며 대부분 Bonche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0〉 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판매량

단위: 백만 개, %

화훼 종류	전체	Full Tabaco	Tabaco	Bonche	Bouquet
화훼 전체	1,318	37	168	949	164
연중 화훼 작물	1,034 (78.4)	34 (92.8)	158 (94.2)	809 (85.2)	32 (19.5)
카네이션	13 (1.0)	1 (3.5)	-	12 (1.3)	-
자이소필리아	22 (1.7)	3 (7.9)	1 (0.6)	10 (1.0)	9 (5.4)
하이페리쿰	21 (1.6)	5 (13.9)	4 (2.5)	11 (1.2)	-
리모니움	0 (0.02)	0 (0.3)	0 (0.1)	0 (0.0)	-
장미	845 (64.1)	24 (65.4)	47 (27.8)	754 (79.5)	20 (12.1)
기타 화훼	132 (10.0)	1 (1.8)	106 (63.2)	22 (2.3)	3 (2.0)
시즌성 화훼 작물	284 (21.6)	3 (7.2)	10 (5.8)	140 (14.8)	132 (80.5)
아스터	4 (0.3)	-	4 (2.2)	1 (0.1)	-
국화	16 (1.2)	0 (0.8)	0 (0.0)	15 (1.6)	1 (0.5)
델피니움	112 (8.5)	0 (0.1)	1 (0.7)	29 (3.1)	82 (49.9)
해바라기	8 (0.6)	-	1 (0.8)	7 (0.7)	-
리아트리스	1 (0.1)	-	-	1 (0.1)	-
기타 화훼	142 (10.8)	2 (6.3)	3 (2.0)	87 (9.2)	49 (30.1)

주: ( )는 판매 방법별 전체에서 각 화훼 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EC21 R&C(2024);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9. 3.

### 3.2.3. 에콰도르의 화훼 교역 동향<sup>7)</sup>

- 2022년 에콰도르의 화훼(절화류) 수출액은 9억 7천만 유로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2022년 절화류 수출액은 전 세계 절화류 수출액의 12.0%를 차지한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화훼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화훼 수출액은 2022년 3억 8천만 달러로 에콰도르 수출액의 39.2%를 차지하며 평균(2017~2022년)적으로 41.7%를 차지한다.
- 미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네덜란드와 카자흐스탄으로 화훼를 수출한 규모는 1억 유로로 나타났으며, 에콰도르 수출액에서 10.2%, 10.1%를 차지한다.
- 카자흐스탄의 경우 에콰도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까지 평균 2.1%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458.1%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출 비중이 10.1%로 증가하였다.
- 러시아는 2021년까지 에콰도르의 화훼 수출액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24.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2년 러시아로의 화훼 수출액은 3천만 유로까지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60.7%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로의 수출을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으로 화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각각 1천만 달러, 3백만 달러로 일본은 전년 대비 20.0% 증가한 반면, 중국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하였다.

---

7)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Union Fleurs(International Floricultural Trade Association) 보고서의 에콰도르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의 통계자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한 것이 아님에 따라 다른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11〉 에콰도르의 화훼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전체	726	714	786	725	784	972	24.1	6.0
미국	316	294	356	276	338	381	12.8	3.8
네덜란드	61	69	68	72	73	99	36.3	10.3
카자흐스탄	13	15	18	14	18	99	458.1	49.8
이탈리아	28	30	29	23	28	39	41.3	6.9
캐나다	19	18	19	30	23	36	61.2	14.2
러시아	135	133	115	100	84	33	-60.7	-24.5
스페인	21	24	24	20	22	32	45.1	8.7
칠레	12	13	11	7	9	24	155.3	13.9
우크라이나	9	10	19	23	17	13	-23.6	6.9
콜롬비아	5	3	4	4	10	12	26.4	21.5
카타르	2	3	5	12	7	11	58.1	39.0
독일	8	8	8	9	8	11	38.8	6.1
벨라루스	2	2	3	6	32	11	-67.0	45.8
호주	6	6	6	6	8	10	31.3	10.7
일본	12	12	10	9	9	10	20.0	-2.7
프랑스	7	7	8	7	8	10	25.5	8.2
체코	3	4	6	6	6	8	32.3	18.7
영국	3	3	4	4	5	8	53.6	20.3
스위스	8	8	8	7	7	7	8.1	-1.7
포르투갈	3	4	5	3	4	7	77.2	16.5
쿠웨이트	3	4	5	11	7	7	-7.1	15.3
루마니아	2	3	3	3	3	7	89.6	24.5
폴란드	2	2	3	4	5	6	40.3	29.4
도미니카 공화국	1	2	3	2	4	6	54.0	33.1
중국	11	13	11	7	4	3	-21.8	-23.2
리투아니아	1	1	1	7	3	3	-13.2	26.1
파라과이	1	1	2	1	4	1	-63.9	3.8
트리니다드 토바고	0	0	0	6	3	1	-60.1	37.3
기타	30	24	32	47	36	75	107.2	20.1

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에콰도르의 화훼의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장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과 비교하여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22년 장미의 수출액은 7억 유로로 전년 대비 30.4%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장미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장미 수출량 증가와 더불어 장미 수출 단가가 상승한 부분에 있다. 2022년 장미 수출량은 1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고, 장미 수출 단가는 kg당 5.2유로로 전년 대비 18.0% 상승했다.
- 장미 다음으로 수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 절화류의 2022년 수출액은 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기타 절화류는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기타 절화류의 2022년 수출량은 3만 톤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수출 단가가 전년 대비 21.8% 상승했다.
- 장미와 기타 절화류 외에 카네이션과 난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절화류(전처리), 국화, 백합의 2022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3-12〉 에콰도르의 화훼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전체	수출액	726	714	786	725	784	972	24.1	6.0
	수출량	148	155	158	153	168	177	5.4	3.6
	수출 단가	4.90	4.61	4.96	4.74	4.67	5.50	17.7	-
장미	수출액	529	513	580	518	549	715	30.4	6.2
	수출량	114	118	123	116	125	138	10.5	3.9
	수출 단가	4.65	4.34	4.72	4.45	4.40	5.20	18.0	-
기타 절화류	수출액	160	160	165	165	183	202	10.4	4.8
	수출량	28	30	30	31	36	33	-9.4	3.0
	수출 단가	5.61	5.27	5.54	5.36	5.03	6.13	21.8	-
절화류 (전처리)	수출액	15	20	19	17	25	24	-2.9	10.1
	수출량	4	4	4	4	4	4	8.7	2.2
	수출 단가	3.83	4.61	5.10	4.53	6.23	5.56	-10.7	-
카네이션	수출액	16	16	16	15	17	24	43.4	8.9
	수출량	1	1	1	1	2	1	-20.6	2.3
	수출 단가	13.49	14.40	14.18	11.27	10.24	18.51	80.6	-
국화	수출액	5	4	5	9	10	6	-32.2	5.7
	수출량	0.4	0.6	0.6	0.5	0.9	0.6	-41.2	9.4
	수출 단가	13.90	7.58	7.51	18.93	10.11	11.66	15.4	-

주: 연도별 수입액이 400만 유로 이상인 품목만 제시하였음.

자료: AIPH(2023);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2023년 에콰도르 화훼 작물 종류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화훼 작물 중 장미의 수출액 비중이 74%(수출액 7억 3,300만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콰도르산 장미는 99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미국(30%), 유럽연합(28%), 카자흐스탄(15%)이 주요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 여름 꽃의 수출액 비중은 12%(수출액 1억 1,60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높으며, 69개국으로 수출된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70%), 유럽연합(7%), 콜롬비아(6%)이다. 안개꽃(Gypsophila)의 수출액 비중은 7%(수출액 7,3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78개국에 수출된다. 카네이션, 보존화, 알스트로에메리아 모두 주요 수출국은 일본, 카자흐스탄, 미국, 유럽연합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3-13〉 2023년 에콰도르 화훼 작물 종류별 수출 현황

품목	전체 화훼 수출액 비중(%)	2023년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 국가 수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국 비중 (%)
장미 (Rosas)	74	733	99개국	미국	30
				유럽연합	28
				카자흐스탄	15
여름 꽃 (Flores de verano)	12	116	69개국	미국	70
				유럽연합	7
				콜롬비아	6
안개꽃 (Gypsophila)	7	73	78개국	유럽연합	38
				미국	20
				카자흐스탄	10
카네이션 (Claveles)	2	23	51개국	일본	28
				카자흐스탄	24
				미국	19
보존화 (flores preservadas)	2	21	60개국	미국	47
				유럽연합	32
				일본	5
알스트로에메리아 (Alstroemeria)	1	7	60개국	카자흐스탄	40
				유럽연합	32
				미국	12

자료: EC21 R&C(2024); ESPOFLORES(2024).

○ 2023년 기준 에콰도르 화훼 작물의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미국이 34%로 1위, 유럽 연합이 26%로 2위, 카자흐스탄이 13%로 3위로 나타났다. 에콰도르의 수출 진흥 담당 정부 기관인 Pro Ecuador에 의하면, 에콰도르의 원예 수출은 국제적인 정치 및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2022~2023년 동안 에콰도르의 주요 시장인 미국, EU, 러시아로의 수출이 여러 국제적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EXPOFLORES, 2024).

-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꽃 소비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해상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컨테이너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화물 항공편과 항공 운임에 비용이 상승하여 러시아로의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 그러나 전통적인 꽃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칠레, 독일, 카타르 등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로 수출 감소세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2023년 에콰도르 화훼 주요 수출국별 수출 현황

국가	비중	수출액(백만 달러)	수출량(톤)
미국	34%	340	53,674
유럽연합	26%	254	48,488
카자흐스탄	13%	129	26,701
캐나다	4%	36	6,108
칠레	2%	19	3,824
터키	2%	17	3,096
카타르	2%	16	3,805
키르기스스탄	2%	14	2,966
콜롬비아	1%	14	1,681
아랍에미리트	1%	12	2,542
우크라이나	1%	11	2,055
일본	1%	10	1,388
호주	1%	10	1,517
스위스	1%	8	1,336
도미니카 공화국	1%	8	1,877
영국	1%	8	1,366
쿠웨이트	1%	7	1,707
엘살바도르	1%	6	1,421
중국	1%	6	927
사우디아라비아	1%	5	1,414

자료: EC21 R&C(2024); EXPOFLORES(2024).

# 4

## 에콰도르 화훼산업 정책

### 4.1. 에콰도르의 농업정책

#### 4.1.1. 에콰도르의 농업정책 개요<sup>8)</sup>

- 에콰도르의 농업 변화는 1964년 국가 주도의 농지 개혁법이 처음 시행되며 시작되었다.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1973년 두 번째 농지 개혁법 시행을 통해 국가 개발 및 경제 안정, 생산자 삶의 질 개선, 소득과 토지의 재분배 등을 도모하였다.
- 이후 에콰도르는 녹색혁명 기간에 농업연구기관(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Agropecuarias: INIAP)과 에콰도르 농업 개혁 및 근대화연구소(Instituto Ecuatoriano de Reforma Agraria y Colonización: IERAC), 국립 개발은행(Banco Nacional de Fomento: BNF) 등을 설립하고 주요 농작물(쌀, 옥수수, 감자 등)의 생산성을 높였다.
-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농업기술 발전 프로그램(Programa de Desarrollo de Tecnología Agrícola: PROTECA)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경지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sup>8)</sup> 에콰도르 농림축산부(<https://www.agricultura.gob.ec/>), 검색일: 2024. 8. 13.; Juan José Egas Yerovi et al.(2018); Lucía Toledo et al.(2023) 등 자료의 내용을 취합하여 요약 정리함.

-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 및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에 기반한 농업 확장, 종자 생산, 농업 부문에 친화적인 신용 시스템의 모니터링 등이 있다.
  - 농경지를 확장하고자 한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국가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경작지 면적은 1954년 약 600만 ha에서 1974년에 795만 ha, 2000년에는 1,235만 ha에 달했다.
-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진행한 건강증진사업(Promoción de La Salud: PROMSA)으로 민간 자본 투입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의 자본이 투입되었으며, 농산물 가격과 농지, 관개, 농업 현대화, 환경 등과 관련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기술혁신시스템(Sistema de Innovación Tecnológica Participativa Agropecuaria: SITPA)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 SITPA 프로그램은 농지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시행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성이 평균 이하이거나 이용률이 낮은 토지의 국가 귀속과 농업 학교 건설, 가족 농의 주 재배작물(쌀, 감자, 옥수수, 밀, 보리 등)에 대한 지원이 있다.
- 2010년 토지개혁법 개정을 통해 3차 농지 개혁이 이뤄졌고, 생산성이 낮거나 토지 이용률이 낮은 농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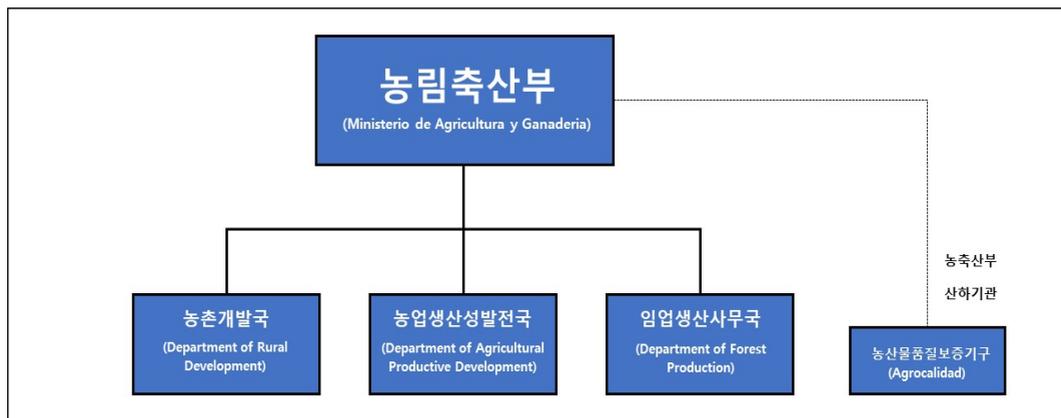
〈표 4-1〉 에콰도르 주요 농업정책 연혁

연도	내용
1964년	에콰도르 1차 농지 개혁법 시행
1973년	에콰도르 2차 농지 개혁법 시행
1984년	농업기술 발전 프로그램 (Programa de Desarrollo de Tecnología Agrícola: PROTECA)
1994년	건강증진사업 (Promoción de La Salud: PROMSA)
2006년	농업기술혁신시스템 프로그램 (Sistema de Innovación Tecnológica Participativa Agropecuaria: SITPA)
2010년	에콰도르 3차 농지 개혁법 시행

자료: Teledo Lucia et al.(2023).

○ 에콰도르의 농업정책은 현재 에콰도르의 농림축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 MAG)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농업 부문의 제도성 강화’를 목표로 농촌개발국, 농업생산성발전국, 임업생산사무국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 에콰도르 주요 농업정책 연혁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https://ire.finanzas.gob.ec/>), 검색일: 2024. 8. 22.

○ 농촌개발국은 2010년부터 국가 농촌 정보 관리 시스템과 기술 기반 시설(El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y Gestión de Tierras Rurales e Infraestructura Tecnológica: SIGTIERRAS) 운용으로 농촌 토지 정보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데스산맥 합법화 정책(Legalización de Tierras Ancestrales)으로 에콰도르 내 토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농업생산성발전국은 중·소규모 농가와 목장주 및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보조하고 있으며, 기후 스마트 축산업 대책의 일환으로써 구제역 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설계 및 시행하고 있다.
- 임업생산사무국은 국가 차원의 산림조성사업 및 국가 산림 농장 모니터링,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확장 및 기술지원 혁신사업(Proyecto de Innovación de Asistencia Técnica y Extensión Rural: PIATER)으로 중·소규모 농가의 생산능력 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에콰도르 농축산부 산하 기구인 농산물품질보증기구(Agrocalidad)는 위생 및 위생허가 인증, 농수산물 인증 관련 담당 기관으로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를 관리하며 2008년부터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sup>9)</sup>
  - 에콰도르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SPS 조치와 관련한 WTO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쌀, 옥수수, 콩 등의 일부 품목의 수입은 농축산부(MAG)에서 관리하고 있다.

#### 4.1.2. 에콰도르 2020-2030 국가농업정책(Política Nacional Agropecuaria 2020-2030)<sup>10)</sup>

- 에콰도르 농축산부는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통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에콰도르 2020-2030 국가농업 정책을 수립했다. 해당 정책은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의 다양한 기회와 최신 기술의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당 정책은 에콰도르 농업의 다양한 주체들인 가족 농민,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 청년 및 농촌 여성, 농산업체, 농산물 수출업자, 서비스 및 자재 공급자, 농업 및 농촌 개발 관련 공공 부문, 학계, 국제 협력 기관들의 참여와 함께 수립되었다.
- 에콰도르 2020-2030 국가농업 정책은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의 다양한

<sup>9)</sup>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검색일: 2024. 8. 26.

<sup>10)</sup> EC21 R&C(2024); 에콰도르 농업부(2021).

기회와 최신 기술의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정책의 주요 전략적 목표는 <표 4-2>와 같으며, 농민들의 빈곤 극복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을 촉진하며, 농업 분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4-2> 에콰도르 2020-2030 국가 농업정책의 전략적 목표

순번	전략적 목표
1	· 빈곤 극복에 기여하고 농민들에게 신용, 보험 농업 지원을 통해 존엄한 삶의 기회를 제공
2	· 수출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품질을 갖춘 지속 가능한 수출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증대 · 제품, 시장, 수출업체를 다각화하고, 국내시장을 위한 국내 생산을 강화하며,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
3	· 생산성 향상 및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 생산의 수익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 숙련된 인력을 통한 농업 강화
4	· 특정 품목에 대한 전문 신용과 농업 보험을 통해 생산을 장려
5	· 농촌과 도시 간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농촌 지역과 문화 보존을 촉진
6	· 농업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자료: 에콰도르 농업부(2021), Política Nacional Agropecuaria 2020-2030.

○ 해당 정책은 농업 생산성 및 농산물의 품질 향상 촉진, 농산물 판매 및 유통의 현대화와 수출 촉진, 농산물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강화, 농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성 증대, 제도적 혁신 및 현대화 등의 내용을 담은 6가지 전략적 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4-3> 에콰도르 2020-2030 국가 농업정책의 전략적 성과 구체적 목표

구분	전략적 축	정책 개발 방향 및 구체적 목표
1	생산성 및 품질향상 촉진	· 유전적 개선을 위한 연구 촉진 · 농업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 강화 · 농업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 표준화 과정을 도입하며,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차별화, 인증 및 추적성 적용 · 농업 관련 작물과 농촌 활동을 다양화하여 시장 기회를 활용
2	시장 지향 및 개발	· 국내 유통 메커니즘의 현대화를 통해 중개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직접 판매를 우선시 · 품질과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수출 촉진에 중점 (무역협정 촉진) · 공급품, 대상 시장, 수출 주체 다양화
3	서비스 및 인프라 접근	· 공급 및 수요 정보 분석 및 사회적 변수를 포함한 정보 접근성 개선 · 특화된 생산 금융, 농업 생산 보험에 대한 접근성 강화 · 토지 소유권 규제 및 관개 시스템 건설 및 접근성 제공 · 수요 및 공급 재고 관리를 위해 생산물 저장 인프라 제공

(계속)

구분	전략적 축	정책 개발 방향 및 구체적 목표
4	협력 강화와 참여	· 현대적 협동조합, 가치사슬 협력, 농식품 시스템, 지역 주체 간의 연계를 통한 협력 강화 · 젊은이들과 농촌 여성들이 농업 활동 및 농촌 창업 촉진 ·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대화, 합의 및 시너지 공간 촉진
5	환경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 환경친화적인 관행을 도입하여 1차 농업 및 임업 생산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장 · 기후 변화가 농식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 조치를 통해 회복력 강화 · 농업 경계 확장 및 도시 확장이 자연 공간과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6	제도적 혁신 및 법적 현대화	· 농업부(MAG)와 산하 기관들의 구조와 운영을 현대화하고 혁신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부처 내외 조율 수준을 개선 · 가치사슬 및 지역의 직간접적 주체들 간의 부문별 대화 강화

자료: 에콰도르 농업부(2021), Política Nacional Agropecuaria 2020-2030.

## 4.2. 에콰도르의 화훼산업 관련 정책

- 에콰도르 화훼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재정 이익을 창출하지만, 해당 산업 발전은 농약 사용과 에너지, 물 등의 자원 소비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에콰도르 화훼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미의 경우, 국제 시장 판매를 위해 탄소 발자국과 같은 환경 인증과 라벨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에콰도르의 탄소제로 프로그램은 국제 검증 표준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기업에 대해 보상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존, 복원,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보상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sup>11)</sup>
  - 에콰도르 환경부는 탄소제로 프로그램 장려를 위해 탄소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 라벨 사용과 세금 감면, 운영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sup>11)</sup> Carbon Footprint International(<https://carbonfootprintinternational.com/>), 검색일: 2024. 8. 28.

○ 에콰도르의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에콰도르 정부와 Flor Ecuador 등의 화훼협회는 여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4-4〉 에콰도르 주요 환경 인증 로고

인증명	인증 로고	인증 정보
Ecuador Carbono Cero		에콰도르 탄소제로 프로그램은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기업에 대해 보상하는 공공정책 수단으로 탄소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라벨 사용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Audubon International		Audubon International은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교육,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커뮤니티, 지역, 신규 토지 개발, 토지개혁, 학교, 기업, 골프장, 숙박 시설 등에 대한 특정 환경 또는 지속 가능성 성과 요건 충족 시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Bird Friendly Coffee		Bird Friendly Coffee 인증은 좋은 조류 서식 환경을 위해 그늘 관리 관행을 사용하여 커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유기농 커피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Sustainable Agricultural Network		SAN 인증은 열대우림 연합이 인증하는 지속 가능성, 친환경 라벨로 기업이나 제품이 아닌 농장에 발급되고 있으며,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따라 커피, 바나나, 코코아, 오렌지, 파인애플, 화훼 및 양치류 농장에 발급한다.
Flower Label Program		FLP는 인권단체와 노동조합, 꽃 상인 및 생산자가 함께하는 협회로 전 세계 꽃 생산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FLP 표준의 기준에 따라 생산한 생산자는 인증을 발급받은 후 플라워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Flor Ecuador certified®		Flor 에콰도르 인증규제는 에콰도르 내 화훼 생산, 마케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증제도로 노동자의 안정 및 건강을 보장하고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VeriFlora		베리플로라는 절화 및 화분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인증 프로그램이다. 해당 인증은 자원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생태계 보호, 제품 품질, 공정한 노동 관행 등의 기준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 후, 생산된 제품에 꽃과 식물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환경적 성과,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베리플로라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자료: Carbon Footprint International(<https://carbonfootprintinternational.com/>), 검색일: 2024. 8. 28.; Flor Ecuador(<https://www.florecuador.com/flor-ecuador-certification>), 검색일: 2024. 9. 2.; Ecolabel Index(<https://www.ecolabelindex.com/ecolabels/?st=country,ec>), 검색일: 2024. 9. 2.; SCS Global Services(<https://www.scsglobalservices.com/services/veriflora-certified-sustainably-grown>), 검색일: 2024. 9. 19.

- 1999년 꽃 라벨 프로그램(Flower Label Program: FLP)을 도입하여 환경보호 기준 및 화훼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안전, 보건 기준을 이행하며 생산된 절화 꽃에 대해 라벨지 부착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Feldt, 2004).
- Flower Label Program은 1999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UN의 세계 인권 선언과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기본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꽃 생산을 위해 설립되었다. FLP 인증은 에콰도르, 케냐,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서 생산된 장미, 카네이션과 같은 절화 꽃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FLP 인증 꽃은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등에서 거래된다.
- Veriflora는 지속 가능한 재배 인증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원예, 화초 재배를 위한 인증으로 환경, 사회,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절화 및 화분 생산자는 Veriflora 지속 성장 인증을 부착하여 소비자 라벨링 및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sup>12)</sup>
- 에콰도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가치사슬의 여러 주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에콰도르 화훼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Productores y Exportadores de Flores del Ecuador: ExpoFlores)는 2005년 Flor Ecuador Certified를 도입하였다.
- Flor Ecuador 인증규제는 에콰도르에서 꽃을 생산, 수출, 판매하는 기업을 위한 사회적, 환경적 인증 체계로, 17년 동안 관련 법률, 시장 요구 사항 및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을 조정해 왔다.
  - Flor Ecuador 인증규제는 노동자의 안정 및 건강을 보장하고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3)</sup>
  - Flor Ecuador 인증규제는 BPA FREE 인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꽃과 장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출 부문에 적용되고 있다.

<sup>12)</sup> SCS Global Services(<https://www.scsglobalservices.com/>), 검색일: 2024. 9. 19.

<sup>13)</sup> Flor Ecuador(<https://www.florecuador.com/>), 검색일: 2024. 9. 2.

○ 해당 인증의 주요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Flor Ecuador certified 4.0을 통해 에콰도르의 생태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매뉴얼을 도입하였다.

- Flor Ecuador 인증 취득 절차는 인증 기업 등록과 인증기관 선택, 신청, 감사, 실행 계획 수립, 계획 검토 및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인증 신청 시 기업에 적합한 인증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동일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인증 신청은 Expoflores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이루어지며, 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인증 요건 외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Flor Ecuador 인증은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 기업에 무기한 유지되며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중단될 수 있다. 인증 취득 후 인증서가 발급되며 Flor Ecuador 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연장, 이전할 수 있다.

〈표 4-5〉 Flor Ecuador 인증 규제 4.0의 주요 목표

구분	주요 목표
1	· 노동자의 권리, 혜택, 안전 및 건강을 보장
2	· 에콰도르 화훼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
3	· 화훼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
4	· 청소년 노동을 규제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
6	· 순환 경제, 좋은 농업 및 환경 관행, 노동 관행을 촉진

자료: 에콰도르 화훼협회(2022), Nueva Versión 4.0 de los Documentos Normativos de la Certificación Flor Ecuador®.

〈표 4-6〉 Flor Ecuador 인증 취득 절차

순번	구분	내용
1	인증 기업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취득을 위한 규정 및 체크리스트 문서 검토</li> <li>· 내부 감사를 통해 초기 준수 진단 수행</li> <li>· Flor Ecuador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생산자는 인증 신청 시 자동으로 인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됨.</li> <li>· Flor Ecuador®의 기술-행정 코디네이션 팀은 인증 절차를 시작한 기업에 3자리 코드 할당</li> <li>· 이 코드는 생산자(PR), 소규모 생산자, OB(종묘업자 또는 브리더), CO(판매업체)에 대한 세부 규격과 함께 부여됨.</li> <li>· 이 코드는 고유하며, 기업이 상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지됨.</li> <li>· 이 코드는 Expoflores의 공식 로고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음</li> </ul>

(계속)

순번	구분	내용
2	인증기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인증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li> <li>· 한 농장은 하나의 인증기관에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장소가 있는 경우 모든 농장은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li> </ul>
3	인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Expoflores의 승인을 받은 인증 기관(OC)에게 인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현지 또는 국제 인증 기관의 승인을 받은 OC이어야 함.</li> <li>· OC는 신청 기업에 신청서 양식을 보내어 공식적인 기술-경제 제안을 준비하고, 이후 인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li> <li>· 신청서 양식에는 인증 범위에 포함될 모든 생산 장소, 수확 후 처리 단위, 관련 행정구역이 명시되어야 함.</li> <li>· 또한, 생산자 또는 기업의 전체 정보와 제품 정보도 포함됨.</li> <li>· 이 양식은 각 인증 또는 재인증 과정에서 작성되며, 필요에 따라 OC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li> </ul>
4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처음으로 Flor Ecuador® 인증 수취 시 감사를 받으며, 첫 감사 이후 매년 실시되는 감사는 재인증 감사임.</li> <li>· 기업이 규정된 시간 내에 재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인증 기록을 상실하고 다시 인증 감사를 받아야 함.</li> <li>· 재인증 감사는 이미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됨.</li> </ul>
5	감사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C는 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일치 사항, 관찰 사항 및 사진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함.</li> <li>· 보고서는 감사를 진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 메일을 통해 기업에 전달되어야 함.</li> <li>· 다수의 장소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OC는 농장별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일치 사항 및 관찰 사항이 발생한 농장을 명시해야 함.</li> <li>· 모든 농장이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평균 점수를 요약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함.</li> </ul>
6	실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감사를 받은 농장(다수의 농장 포함)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감사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 및 관찰 사항을 기반으로 한 예방 및 수정 조치를 포함해야 함.</li> <li>· 실행 계획은 해당 양식에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OC에 제출되어야 함.</li> </ul>
7	실행 계획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 계획의 검토는 OC의 감사관이 수행하며, 기업에 해당하는 관찰 사항 및/또는 승인을 통보함.</li> <li>· 만약 실행 계획으로 일부 발견 사항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OC는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8	인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OC의 기술 위원회는 기업의 인증 결정을 담당하며, Flor Ecuador Certified®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책임도 보유함.</li> </ul>
9	인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C의 인증 위원회가 인증 결정을 내린 후, 규정 부록 13.7에 따라 1년 유효 기간의 인증서가 발급됨.</li> <li>· 인증서 포함 정보: 인증기관과의 인증 시작일, 인증 결정일, 인증 만료일, 인증 번호, 인증 범위, 인증된 헥타르 수</li> </ul>
10	인증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간의 인증서 연장을 받을 수 있음.</li> <li>· 이를 위해 기업은 인증기관(OC)에 인증서 연장을 요청해야 함.</li> <li>· OC는 승인된 인증서 연장을 즉시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li> <li>· 인증서 연장을 신청한 기업은 연장 기간 동안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li> </ul>
11	인증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lor Ecuador® 인증을 위한 등록이 되어 있고 제재를 받지 않은 생산자 또는 판매업체만 OC를 변경할 수 있음.</li> <li>· 생산자나 판매업체는 새로운 OC로 이전되기 전에 모든 미해결 제재를 해결해야 하며, 불일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마지막 보고서의 전송을 승인해야 함.</li> <li>· 새로운 OC는 이전된 생산자나 판매업체의 원래 등록 번호를 유지해야 하며, 이중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li> </ul>

자료: 에콰도르 화훼협회(2022), Nueva Versión 4.0 de los Documentos Normativos de la Certificación Flor Ecuador®.

-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인증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지속 가능한 화훼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책임 있는 행동 강령, 표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개발, 홍보 및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해당 인증은 농업경제학자, 사회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화훼분야의 독립적인 사회 및 환경 표준을 이행하는 생산자에 발급된다.
  -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인증은 상인과 소비자에게는 구매한 꽃과 관상용 식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여 생산되었음을 보증하며,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도입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인증제도는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꽃과 관상용 식물에 대한 인증 규정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인증은 품질, 환경 및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인증 취득 절차는 인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 자가 평가 실시와 내부 검사, 신청 기업에 대한 인증 규정 교육, 인증기관 식별, 신청 후 인증기관 검토, 인증기관 시스템 등록 및 인증코드 발급, 통지, 평가 순으로 이뤄진다.
  - 정기 내부 검사의 경우 매년 내부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서 인증된 인력 또는 인증된 외부 인력을 통해 진행한다. Floverde는 매년 변화하는 연간 내부 검사 규정에 맞는 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표 4-7〉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인증 취득 절차

순번	구분	내용
1	내부 자가 평가 실시	· FSF인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 자가평가를 실시 ·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정기 내부 검사	· 매년 내부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서 인증된 인력 또는 외부에서 고용된 인증된 인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이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FSF 인증을 위한 일반 규정의 부록 3 표 3에서 설명된 검사관 및 내부 검사관을 위한 역량 및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Floverde 규정 교육	· 교육 과정의 일시와 비용은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아카데미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은 FST 규정 교육과 감사 기법 교육으로 구분됨. · 내부 직원을 연간 내부 검사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을 권장함. · FSF 규정에 대한 회사 직원 교육은 농장에서의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 관리의 일환으로 회사의 관리 시스템을 더 잘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계속)

순번	구분	내용
4	인증기관 식별	· 인증기관은 Bureau Veritas, Icontec, Mayacert Certifier, NaturaCert 4개 기관이 해당됨.
5	견적 수취	· 선호하는 인증기관과 함께 서비스를 선택 후 연락하여 견적서 수취
6	양식 작성	·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Floverde 인증 등록 양식 요청 후 작성
7	제출	· 완전히 작성된 등록 양식을 인증기관에 제출
8	인증기관 검토	· 인증기관의 검토 후 서명을 위한 재라이선스 계약서 제출
9	서명	· 재라이선스 계약에 서명 후 인증기관 제출
10	인증기관 알림	· 인증기관은 Floverde 사무국에 신청자 등록 고시
11	SIME 등록	· 등록 절차와 동시에 Floverde의 기술 및 행정 사무국에 Floverde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요청
12	FSF에 의한 번호 할당	· Floverde 사무국은 모든 인증 활동에 대한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할 독립적인 Floverde 번호(NFSF)를 할당함. ·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할당된 NFSF를 통보함.
13	통지	·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평가 날짜를 통보함.
14	평가	· 평가 진행 전 모든 등록 프로세스가 완료되어야 함.

자료: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2024), Paso a paso para la certificación en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 5

## 한·에콰도르 농축산물 교역 동향

### 5.1. 에콰도르의 농식품 교역 및 FTA 추진 현황

#### 5.1.1. 에콰도르의 농식품 교역 동향

○ 2022년 에콰도르의 전체 교역 규모는 657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농식품 교역 규모는 114억 달러로 전체 교역 규모의 17.3%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은 74억 달러,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28.2%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4.9%, 14.8%씩 증가하고 있다.

〈표 5-1〉 에콰도르의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US)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전체 교역	교역액	391	448	448	383	524	657	25.4	11.0
	수출액	191	217	222	203	267	327	22.3	11.4
	수입액	200	232	226	179	257	330	28.6	10.6
	무역수지	-9	-15	-3	24	10	-4	-138.7	-16.2
농식품 교역	교역액	78	83	84	90	99	114	15.1	7.8
	수출액	58	60	62	67	68	74	9.2	4.9
	수입액	20	23	23	23	31	40	28.2	14.8
	무역수지	38	38	39	44	37	34	-7.0	-2.3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https://www.bce.fin.ec/en/press-release/ecuadorean-economy-recorded-a-growth-of-2-4-in-2023>), 검색일: 2024. 8. 27.;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4. 8. 26.

○ 2022년 에콰도르의 전체 수출액은 327억 달러로 이 중 농식품 수출액은 74억 달러이며 전체 수출액의 22.7%를 차지한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농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콜롬비아, 칠레 등으로 상위 10개국의 농식품 수출액이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63.6%를 차지한다.
- 2022년 기준으로 에콰도르가 가장 많이 농식품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2022년 에콰도르의 對미 농식품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4.0%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對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9백만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0.1% 수준에 불과하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농식품 주요 수출 상품은 바나나, 기타 유기물, 코코아두, 기타 과일 식품, 냉동 채소 등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농식품 수출액이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87.6%를 차지하며 이 중 바나나가 45.7%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전체 수입액은 330억 달러로 이 중 농식품 수입액은 40억 달러이며 전체 수입액의 12.1%를 차지한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농식품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캐나다 등으로 상위 10개국의 농식품 수입액이 농식품 전체 수입액의 86.9%를 차지한다.
- 2022년 기준으로 에콰도르가 가장 많이 농식품을 수입한 국가는 미국으로 2022년 에콰도르의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9.1%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90만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농식품 주요 수입 상품은 대두 부산물, 밀, 기타 사료 및 조제품, 기타 식품, 대두유 등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농식품 수입액이 농식품 전체 수입액의 71.7%를 차지한다.

〈표 5-2〉 에콰도르의 농식품 수출 상위 10개 국가 및 상품

단위: 백만 달러(US),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전체	5,835	6,043	6,153	6,715	6,783	7,404	9.2	4.9	
국가	미국	1,331 (22.8)	1,247 (20.6)	1,380 (22.4)	1,551 (23.1)	1,596 (23.5)	1,780 (24.0)	11.5	6.0
	러시아	806 (13.8)	803 (13.3)	807 (13.1)	817 (12.2)	827 (12.2)	837 (11.3)	1.2	0.8
	네덜란드	329 (5.6)	324 (5.4)	382 (6.2)	360 (5.4)	486 (7.2)	579 (7.8)	19.2	12.0
	콜롬비아	224 (3.8)	258 (4.3)	227 (3.7)	221 (3.3)	173 (2.6)	283 (3.8)	63.7	4.8
	칠레	147 (2.5)	179 (3.0)	149 (2.4)	144 (2.1)	193 (2.8)	225 (3.0)	16.8	8.9
	독일	400 (6.9)	352 (5.8)	263 (4.3)	279 (4.2)	254 (3.7)	219 (3.0)	-13.7	-11.3
	이탈리아	316 (5.4)	310 (5.1)	180 (2.9)	248 (3.7)	219 (3.2)	206 (2.8)	-5.7	-8.2
	튀르키예	106 (1.8)	162 (2.7)	234 (3.8)	288 (4.3)	207 (3.0)	193 (2.6)	-6.5	12.6
	일본	152 (2.6)	151 (2.5)	153 (2.5)	168 (2.5)	177 (2.6)	192 (2.6)	8.6	4.7
	말레이시아	87 (1.5)	110 (1.8)	73 (1.2)	129 (1.9)	100 (1.5)	190 (2.6)	91.4	16.9
상품	바나나	2,959 (50.7)	3,116 (51.6)	3,185 (51.8)	3,577 (53.3)	3,393 (50.0)	3,386 (45.7)	-0.2	2.7
	기타 유기물	897 (15.4)	866 (14.3)	893 (14.5)	844 (12.6)	974 (14.4)	1,057 (14.3)	8.6	3.3
	코코아두	590 (10.1)	665 (11.0)	657 (10.7)	816 (12.2)	819 (12.1)	915 (12.4)	11.7	9.2
	기타 과일 식품	196 (3.4)	204 (3.4)	191 (3.1)	205 (3.0)	234 (3.4)	275 (3.7)	17.6	7.0
	냉동 채소	114 (2.0)	129 (2.1)	147 (2.4)	168 (2.5)	168 (2.5)	201 (2.7)	19.8	11.9
	팜유	208 (3.6)	195 (3.2)	127 (2.1)	120 (1.8)	139 (2.1)	195 (2.6)	39.8	-1.3
	바나나(요리용)	86 (1.5)	102 (1.7)	125 (2.0)	105 (1.6)	107 (1.6)	137 (1.9)	27.9	9.9
	기타 과일 식품	13 (0.2)	37 (0.6)	48 (0.8)	71 (1.1)	94 (1.4)	113 (1.5)	20.9	53.1
	커피 추출물	102 (1.7)	69 (1.1)	71 (1.2)	60 (0.9)	62 (0.9)	106 (1.4)	71.3	0.7
	담배(미가공)	67 (1.1)	70 (1.2)	77 (1.3)	73 (1.1)	85 (1.3)	102 (1.4)	18.9	8.7

주: ()는 해당 국가 및 상품이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4. 8. 26.

〈표 5-3〉 에콰도르의 농식품 수입 상위 10개 국가 및 상품

단위: 백만 달러(US),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2)	
전체	2,004	2,269	2,294	2,309	3,114	3,991	28.2	14.8	
국가	미국	293 (14.6)	382 (19.1)	496 (24.7)	542 (27.1)	623 (31.1)	784 (39.1)	26.0	21.7
	아르헨티나	216 (10.8)	236 (11.8)	145 (7.2)	170 (8.5)	356 (17.8)	599 (29.9)	68.3	22.6
	볼리비아	225 (11.2)	249 (12.4)	241 (12.0)	255 (12.7)	357 (17.8)	473 (23.6)	32.5	16.0
	페루	283 (14.1)	297 (14.8)	297 (14.8)	242 (12.1)	291 (14.5)	430 (21.5)	47.7	8.8
	캐나다	181 (9.0)	202 (10.1)	206 (10.3)	211 (10.5)	379 (18.9)	368 (18.4)	-2.8	15.2
	칠레	227 (11.4)	233 (11.6)	225 (11.2)	226 (11.3)	262 (13.1)	265 (13.2)	1.2	3.1
	콜롬비아	154 (7.7)	162 (8.1)	175 (8.7)	176 (8.8)	207 (10.3)	263 (13.1)	27.4	11.3
	브라질	47 (2.3)	55 (2.7)	53 (2.6)	57 (2.8)	75 (3.7)	114 (5.7)	52.5	19.5
	멕시코	63 (3.1)	73 (3.6)	66 (3.3)	65 (3.2)	66 (3.3)	92 (4.6)	40.7	8.1
	스페인	37 (1.9)	40 (2.0)	45 (2.2)	49 (2.5)	67 (3.4)	79 (4.0)	17.6	16.2
상품	대두 부산물	323 (16.1)	465 (20.5)	442 (19.3)	477 (20.6)	730 (23.5)	967 (24.2)	32.4	24.6
	밀	281 (14.0)	300 (13.2)	315 (13.8)	325 (14.1)	499 (16.0)	624 (15.6)	25.0	17.3
	기타 사료·조제 품	283 (14.1)	291 (12.8)	277 (12.1)	230 (10.0)	315 (10.1)	424 (10.6)	34.4	8.4
	기타 식품	180 (9.0)	201 (8.9)	205 (8.9)	242 (10.5)	274 (8.8)	265 (6.6)	-3.3	8.1
	대두유	101 (5.1)	90 (4.0)	89 (3.9)	86 (3.7)	147 (4.7)	220 (5.5)	49.3	16.7
	옥수수	47 (2.4)	56 (2.5)	47 (2.0)	44 (1.9)	59 (1.9)	116 (2.9)	98.7	19.7
	기타 유기물	49 (2.4)	60 (2.6)	54 (2.4)	53 (2.3)	65 (2.1)	76 (1.9)	17.0	9.2
	해바라기씨유	29 (1.4)	29 (1.3)	26 (1.1)	29 (1.3)	42 (1.3)	58 (1.4)	39.3	14.8
	사과	45 (2.3)	48 (2.1)	52 (2.3)	58 (2.5)	55 (1.8)	57 (1.4)	4.1	4.7
	페이스트리 (베이커리)	31 (1.5)	34 (1.5)	41 (1.8)	38 (1.7)	43 (1.4)	55 (1.4)	27.3	12.5

주: ( )는 해당 국가 및 상품이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4. 8. 26.

### 5.1.2. 에콰도르의 FTA 추진 동향

○ 에콰도르는 1969년 경제 협력 공동체인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 CAN)를 통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칠레와 다자간 무역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주로 경제 및 무역 협정을 추진했으나, 2014년 EU·에콰도르 FTA 발효 이후 EFTA, 중국, 미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 에콰도르는 중국과 2023년 5월 FTA를 체결한 이후, 2024년 5월 공식적으로 중국·에콰도르 FTA가 발효되었으며, FTA 협정에 따라 전체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그 가운데 60%의 품목은 협정 발효일에 즉시 철폐된다.
- 에콰도르는 태평양 동맹(PA) 국가 중 콜롬비아, 칠레, 페루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FTA 체결을 통해 태평양 동맹(PA)에 가입하기 위해 멕시코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2012년부터 추진된 한국과 에콰도르의 무역 협정인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up>14)</sup>는 2023년 10월 가서명되었고, 정식 서명 등을 앞두고 있다.

-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은 2015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6년까지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 다시 협상이 재개되어 4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호 간 쟁점에 대해 합의한 다음 2023년 10월 11일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이루어졌다.
- 한·에콰도르 SECA 협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수입액 98.8%), 에콰도르는 92.8%(수입액 97.6%)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에콰도르의 관심 품목 중 하나인 농축임산물(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 수준 내에서 시장 개방되었고, 한국의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양허 제외되었다.

<sup>14)</sup>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체결한 SECA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을 의미함.

- 다만, 에콰도르 주요 생산 품목인 화훼(장미, 카네이션 등)의 관세가 발효 이후 12년, 15년간 철폐될 예정이며, 바나나의 관세(30%)는 5년간 철폐될 예정이다.

〈표 5-4〉 한국과 에콰도르의 SECA 체결 동향

일자	내용
2012. 4.	한·에콰도르 TA 타당성연구 진행 합의
2012. 9.~2013. 6.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5. 4.	한·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2015. 8.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 선언
2015. 12.	한·에콰도르 SECA 예비 합의 개최
2016. 1.~11.	한·에콰도르 SECA 제1~5차 협상
2022. 7.~2023. 4.	한·에콰도르 SECA 제6~9차 협상
2023. 9.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2023. 10.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및 협정문 가서명

자료: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검색일: 2024. 8. 23.

〈표 5-5〉 한국·에콰도르 SECA 협상 결과

구분	분류	주요 품목
상대측 개방	주력 품목 경쟁력 강화	주요 자동차(15년), 중소형 하이브리드차(5년), 자동차부품(범퍼, 쇼크업소버, 보닛 등)(즉시), TV(5년), 세탁기(10년)
	유망 품목진흥	의약품(즉시 철폐), 의료기기(5년), 화장품(10년), 건설중장비(10년), 배(즉시 철폐), 김(5년), 건강음료(7년), 라면(10년), 커피 조제품(10년)
우리측 개방	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	원유(10년), 사료용 옥수수(12년), 사료용 유장(12년), 배합사료(즉시 철폐)
	민감품목 보호	쌀·고추·마늘·양파(양허 제외), 장미(12년), 카네이션(15년), 갈치·고등어(양허 제외), 냉동새우(TRQ), 유제품(양허 제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10. 10.).

## 5.2. 한·에콰도르 농축산물 교역 동향

- 2023년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체 교역 규모는 약 9.6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농축산물의 교역 규모는 1,536만 달러로 전체 교역 규모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 2023년도 농축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80만 달러, 1,4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1.5%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연평균 2.4%, 14.9%씩 감소하고 있다.
- 2023년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1,376만 달러로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큰 무역 구조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표 5-6〉 한국과 에콰도르 교역 현황

단위: 만 달러(US)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3)	
전체 교역	교역액	73,667	89,877	72,987	46,792	96,896	98,102	96,474	-1.7	3.8
	수출액	60,886	78,187	47,939	37,736	76,150	77,072	76,865	-0.3	10.1
	수입액	12,780	11,689	25,048	9,056	20,746	21,030	19,609	-6.8	-2.2
	무역수지	48,106	66,498	22,892	28,680	55,404	56,042	57,256	2.2	-
농축산물 교역	교역액	3,919	3,580	2,620	1,878	1,724	1,503	1,536	2.2	-14.5
	수출액	92	109	71	55	64	69	80	16.4	-2.4
	수입액	3,827	3,471	2,549	1,823	1,660	1,434	1,456	1.5	-14.9
	무역수지	-3,734	-3,362	-2,478	-1,768	-1,596	-1,365	-1,376	0.8	-

주 1) 전체 무역수지는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2) 농축임산물 수입액은 HS 3,084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무역통계자료 재가공, 검색일: 2024.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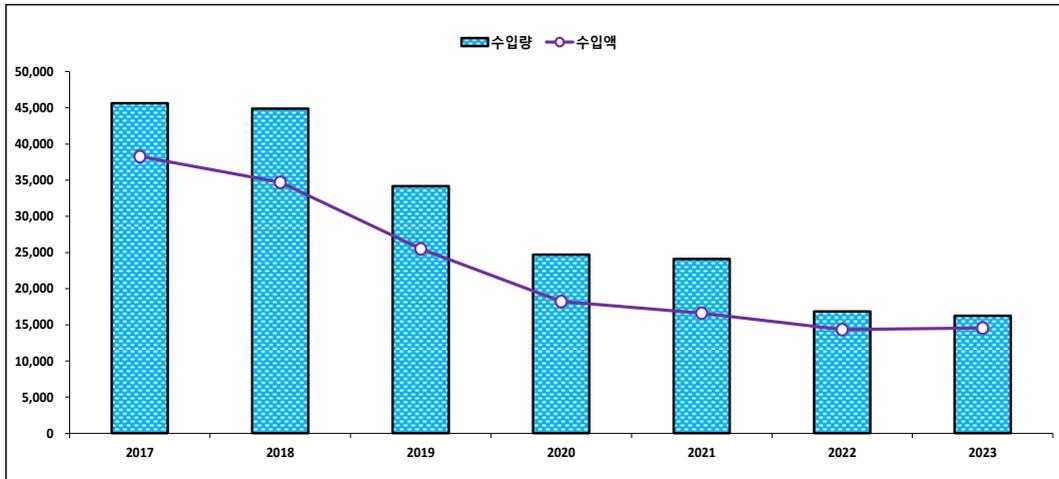
○ 2023년 우리나라의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 수입액은 1,4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14.9%씩 감소하고 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일(신선)이 가장 큰 비율로 수입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 과일(가공), 임산물 순으로 수입액이 높게 나타났다.

-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 수입액은 과일(신선)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 321만 달러에서 2017년 3,827만 달러로 1,091.2% 증가하였으나, 이후 과일(신선)의 수입 감소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4.9%씩 감소하고 있다.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콰도르산 과일(신선)의 수입은 2017년 3,536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15.8%씩 감소하여 2023년 수입액은 1,263만 달러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콰도르산 가공식품의 수입액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3년 에콰도르산 가공식품의 수입액은 12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0% 감소했다.
- 2023년 에콰도르산 과일(가공), 채소, 화훼 수입액은 각각 39만 달러, 10만 달러, 7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39.1%, 12.7%, 22.5% 감소했다.
- 이 외 에콰도르산 곡류와 축산물의 수입은 거의 없으며, 에콰도르산 임산물 수입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3년 에콰도르산 임산물 수입액은 14만 달러 수준이다.

〈그림 5-1〉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의 수입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주: 농축임산물 수입액은 HS 3,084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4), 무역통계자료 재가공. 검색일: 2024. 11. 20.

〈표 5-7〉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의 부류별 수입액 변화

단위: 만 달러(US)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3)
전체 합계	3,826	3,472	2,550	1,823	1,661	1,434	1,456	1.5	-14.9
농산물	3,634 (95.0)	3,305 (95.1)	2,378 (93.2)	1,583 (86.9)	1,414 (85.1)	1,204 (83.9)	1,320 (90.7)	9.6	-15.5
- 곡류	-	-	1 (0.0)	0 (0.0)	0 (0.0)	-	0 (0.0)	-	-

(계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3)
- 과일(신선)	3,536 (92.4)	3,221 (92.8)	2,320 (91.0)	1,518 (83.3)	1,361 (81.9)	1,119 (78.0)	1,263 (86.8)	12.9	-15.8
- 과일(가공)	56 (1.5)	50 (1.4)	39 (1.5)	47 (2.6)	32 (1.9)	64 (4.4)	39 (2.7)	-39.1	-5.8
- 채소	9 (0.2)	12 (0.3)	5 (0.2)	12 (0.7)	18 (1.1)	12 (0.8)	10 (0.7)	-12.7	2.1
- 화훼	33 (0.9)	22 (0.6)	14 (0.5)	5 (0.3)	3 (0.2)	10 (0.7)	7 (0.5)	-22.5	-22.1
가공식품	172 (4.5)	153 (4.4)	131 (5.2)	173 (9.5)	163 (9.8)	187 (13.0)	122 (8.3)	-35.0	-5.7
축산물	0 (0.0)	1 (0.0)	20 (0.28)	-	0 (0.0)	-	0 (0.0)	-	-49.6
임산물	20 (0.5)	13 (0.4)	20 (0.8)	67 (3.7)	84 (5.0)	43 (3.0)	14 (1.0)	-66.1	-5.2

주 1) 부류별 수입액은 HS 3,084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2) ( )는 해당 부류가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4), 무역통계자료 재가공. 검색일: 2024. 11. 20.

○ 2023년 에콰도르산 주요 수입 품목은 바나나, 커피 조제품, 기타 과일, 커피, 초콜릿 등으로 과일 및 가공식품 관련 품목이 수입액 기준으로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콰도르산 바나나는 2023년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86.8%(수입량 기준 94.9%)를 차지한다. 2023년 에콰도르산 바나나 수입액은 1,2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바나나 수요 감소 및 베트남, 코스타리카, 페루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됨에 따라 연평균 15.8%씩 감소하고 있다.

\* 2023년 우리나라의 바나나 수입액은 3억 달러로 필리핀산 69.1%, 베트남산 12.0%를 차지하고, 코스타리카산 4.9%, 페루산 4.1%, 에콰도르산 4.1%를 차지하고 있다.

- 바나나 다음으로 수입액 비중이 큰 품목은 커피 조제품의 2023년 에콰도르산 수입액은 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0% 감소하였고, 2017년 이후 브라질, 베트남, 독일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됨에 따라 연평균 4.6%씩 감소하고 있다.

-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 커피, 초콜릿, 기타 사료용 조제품, 기타 채소, 기타 원목 수입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기타 과일, 코코아두, 열대산원목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표 5-8〉 에콰도르산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 변화(2023년 기준)

단위: 천 달러(US), 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3)
바나나	수입액	35,360	32,206	23,196	15,180	13,606	11,189	12,629	12.9	-15.8
	수입량	44,333	43,585	32,987	21,657	21,314	15,089	15,418	2.2	-16.1
커피 조제품	수입액	631	485	378	746	283	560	476	-15.0	-4.6
	수입량	42	31	24	51	20	39	33	-15.7	-3.8
기타 과일	수입액	554	496	385	471	322	625	380	-39.2	-6.1
	수입량	406	290	232	220	222	252	223	-11.4	-9.5
커피	수입액	58	29	182	198	120	211	231	9.4	25.8
	수입량	6	2	11	14	11	6	9	56.2	9.0
초콜릿	수입액	189	248	100	83	116	97	168	73.1	-2.0
	수입량	22	35	10	9	13	11	17	53.7	-3.7
코코아두	수입액	678	673	594	523	698	725	134	-81.5	-23.6
	수입량	245	278	234	206	264	265	39	-85.4	-26.5
기타 사료용 조제품	수입액	36	78	39	118	267	96	129	34.0	23.8
	수입량	9	20	10	30	68	25	33	34.1	24.2
기타 채소	수입액	67	81	49	102	116	83	104	24.8	7.6
	수입량	28	68	43	84	70	63	85	36.5	20.1
기타 원목	수입액	24	-	35	-	86	44	81	83.8	22.6
	수입량	77	-	99	-	259	105	215	104.2	18.8
열대산원목	수입액	-	-	91	610	428	301	56	-81.3	-
	수입량	-	-	217	2,306	1,396	858	154	-82.0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4), 무역통계자료 재가공. 검색일: 2024. 11. 20.

○ 2023년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이 농축임산물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산물, 채소, 과일(가공)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 2023년 에콰도르로 수출된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6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4.7%씩 감소하고 있다. 가공식품 수출액이 농축임산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7.9%이다.

- 가공식품 다음으로 임산물이 수출되고 있으며, 2023년 임산물 수출액은 1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0.9% 증가하였고, 2017년 이후 연평균 27.2%씩 증가하고 있다.
- 그 외 2023년 과일(가공), 채소의 수출액은 각각 2만, 3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고, 축산물과 곡류의 수출액은 크지 않다.

〈표 5-9〉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농축임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만 달러(US)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3)
전체 합계	92	109	71	55	64	69	80	16.4	-2.4
농산물	5 (5.1)	8 (6.9)	6 (8.7)	5 (9.4)	5 (8.0)	7 (10.5)	5 (6.5)	-27.9	1.9
- 곡류	-	-	-	1 (1.5)	1 (1.3)	0 (0.5)	0 (0.4)	4.1	-
- 과일(신선)	-	-	-	-	-	-	-	-	-
- 과일(가공)	3 (3.7)	6 (5.3)	2 (2.1)	2 (3.5)	1 (1.9)	0 (0.7)	2 (2.3)	310.5	-9.6
- 채소	1 (1.4)	2 (1.6)	5 (6.5)	2 (4.4)	3 (4.9)	6 (9.4)	3 (3.8)	-53.0	15.3
- 화훼	-	-	-	-	-	-	-	-	-
가공식품	84 (90.4)	94 (85.8)	61 (85.6)	46 (83.4)	57 (88.4)	57 (82.1)	62 (77.9)	10.4	-4.7
축산물	1 (1.6)	4 (3.7)	0 (0.3)	0 (0.1)	0 (0.2)	4 (6.4)	1 (1.3)	-76.4	-5.7
임산물	3 (2.9)	4 (3.6)	4 (5.5)	4 (7.1)	2 (3.4)	1 (0.9)	11 (14.3)	1,680.9	27.2

주 1) 부류별 수입액은 HS 3,084개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2) ()는 해당 부류가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개별 품목 수치를 반올림하여 전체 합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4), 무역통계자료 재가공. 검색일: 2024. 11. 20.

○ 2023년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농축임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판지, 개 사료, 홍삼 조제품, 기타 식물성유지 등으로 가공식품 및 임산물 관련 품목이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 2023년 **에콰도르 농축임산물 수출액의 15.5%**를 차지하는 라면의 2023년 수출액은 1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5%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45.7%씩 증가하고 있다.
- 라면 다음으로 판지 수출액이 전체 농축임산물 수출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거의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023년 11만 달러, 302톤을 수출하였다.
- 홍삼 조제품은 지속적으로 에콰도르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홍삼 조제품 수출액은 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연평균 18.4%씩 증가하고 있다.
- 그 외 기타 음료, 인스턴트면, 기타 파스타의 2023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채소 종자, 기타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기타 식물성유지의 경우 에콰도르로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23년 8만 달러, 30톤을 수출하였다.

〈표 5-10〉 우리나라의 **에콰도르 상위 10개 수출 품목의 수출 동향**

단위: 만 달러(US), 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3)
라면	수출액	1	5	5	6	11	17	12	-26.5	45.7
	수출량	3	12	12	15	27	40	29	-27.3	43.4
판지	수출액	-	-	1	-	-	-	11	-	-
	수출량	-	-	93	-	-	-	302	-	-
개 사료	수출액	-	-	-	-	-	-	9	-	-
	수출량	-	-	-	-	-	-	5	-	-
홍삼 조제품	수출액	3	4	8	3	8	3	8	132.4	18.4
	수출량	0	1	1	0	1	0	1	146.4	18.0
기타 식물성유지	수출액	-	-	-	6	-	-	8	-	-
	수출량	-	-	-	29	-	-	30	-	-
기타 음료	수출액	-	12	5	2	6	1	6	457.6	-
	수출량	-	133	51	17	60	10	60	510.2	-
인스턴트면	수출액	-	-	-	0	0	1	3	257.0	-
	수출량	-	-	-	1	0	2	7	257.2	-
채소 종자	수출액	1	2	5	2	2	6	3	-57.4	12.2
	수출량	0	0	0	0	0	0	0	-50.5	-11.0
기타 파스타	수출액	-	-	-	-	-	2	2	9.0	-
	수출량	-	-	-	-	-	3	4	44.8	-
기타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	0	0	0	0	4	3	2	-40.3	48.3
	수출량	0	0	1	0	16	4	3	-23.1	42.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4), 무역통계자료 재가공. 검색일: 2024. 11. 20.

### 5.3. 한·에콰도르 화훼 교역 동향<sup>15)</sup>

- 우리나라의 에콰도르산 화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화훼 수입액(2017~2023년 평균 기준) 0.2%를 차지하고 있다.
  - 2023년 에콰도르산 화훼 수입액은 약 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5% 감소했고, 2017년 이후 연평균 22.1%씩 감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에콰도르산 품목별 화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장미 수입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 화초, 안개초, 난초 등의 순이다.
  - 2023년 에콰도르산 장미의 수입액은 3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6%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30.2%씩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에콰도르산 장미 수입액은 24만 달러로 화훼 전체 수입액의 72.2%를 차지하였으나, 장미 수입 감소 및 기타 화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화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7.3%이다.
  - 장미 다음으로 수입 비중이 큰 기타 화초의 2023년 수입액은 2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7% 감소했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24.1%씩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에콰도르산 기타 화초의 수입액은 1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9%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7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 비중도 70.2%까지 증가하였다. 2023년 기타 화훼의 수입액 비중은 31.1%로 전년 대비 39.1%p 감소했다.
  - 기타 절화의 경우, 2020년까지 화훼 전체 수입액의 평균(2017~2020년) 26.6%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3년 수입액은 1천 달러이고 전년 대비 61.2% 감소하였다.
  - 에콰도르산 안개초 수입액은 2022년까지 화훼 전체 수입액의 평균(2017~2022년) 2.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19.2%로 비중이 커졌다.
  - 이외 난초, 카네이션, 기타 구근, 양란 등이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 규모가 크지 않다.

<sup>15)</sup> 우리나라의 에콰도르 화훼 수출은 2004년 선인장을 수출한 이후 수출 실적이 없음.

〈표 5-11〉 한국의 에콰도르산 화훼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US)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17~'23)
전체	335	224	138	54	29	97	75	-22.5	-22.1
장미	242	146	79	27	9	19	28	49.6	-30.2
기타 화초	6	14	14	11	10	68	23	-65.7	24.1
안개초	14	0	3	1	-	7	14	114.1	0.4
난초	-	-	-	-	7	-	6	-	-
카네이션	-	-	-	1	-	-	3	-	-
기타 절화	73	64	42	14	1	3	1	-61.2	-49.6
기타 구근	-	-	-	0	2	0	-	-	-
양란	-	-	0	-	-	0	-	-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24), 무역통계자료 재가공. 검색일: 2024. 11. 20.

○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에콰도르산 화훼 품목의 HS Code 기준으로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화훼 품목은 5단계에서 15단계까지 관세가 철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비중이 가장 큰 장미의 현행 관세는 25%로 한·에콰도르 SECA 발효 이후 12단계(F)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고, 다음으로 비중이 큰 기타 화초(현행 관세: 8%)의 관세는 5단계(C)에 걸쳐 발효 이후 철폐될 예정이다.
- 이 외 품목들의 현행 관세는 8%, 25%이고 한·에콰도르 SECA 발효 이후 5단계(C), 7단계(D), 12단계(F), 15단계(G)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표 5-12〉 한·에콰도르 SECA 협정에 따른 한국의 에콰도르산 화훼 품목 관세 철폐 일정

구분	HS Code	현행 관세	한·에콰도르 SECA 협정
장미	0603.11.0000	25%	12단계(F)
기타 화초	0602.90.1090	8%	5단계(C)
안개초	0602.90.1040	8%	12단계(F)
	0603.19.4000	25%	12단계(F)
난초	0602.90.1010	8%	5단계(C)
카네이션	0603.12.0000	25%	15단계(G)
기타 절화	0603.19.9000	25%	12단계(F)
	0603.90.0000	25%	7단계(D)
기타 구근	0601.20.9090	8%	5단계(C)
양란	0603.13.9000	25%	12단계(F)

자료: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검색일: 2024. 8. 29.

#### 5.4. 에콰도르산 장미의 가격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에콰도르는 화훼류 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화훼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장미는 전체 절화류 생산의 67.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이며,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절화류도 장미이다.
- 수입 비중이 가장 큰 장미의 현행 관세는 25%로 한·에콰도르 SECA 발효 이후 12단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로의 장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콰도르산 장미와 우리나라가 장미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단가를 비교해 국내 도입 추정 가격을 산출해 보았다.<sup>16)</sup>
- 수입단가를 살펴봤을 때, 콜롬비아산 장미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관세율이 하락한 콜롬비아의 장미 국내 도입 추정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콰도르산 장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한·에콰도르 FTA 발효로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에콰도르산 장미와 콜롬비아산 장미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며, 원산지 간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3〉 에콰도르산과 콜롬비아산 장미(절화)의 수입단가 및 도입 추정 가격 비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단가(달러/kg)	에콰도르	11.8	12.7	11.6	15.7	18.7	23.7	8.2
	콜롬비아	21.7	17.9	12.0	11.1	10.4	11.0	9.9
환율(원/달러)		1,131.0	1,101.5	1,166.7	1,180.1	1,145.6	1,294.2	1,307.8
관세율(%)	에콰도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콜롬비아	15.0	10.0	5.0	0.0	0.0	0.0	0.0

16) 수입산 장미의 수입단가는 kg당 가격으로 국산 장미 가격의 속당 가격과 단위가 상이하여 국산 장미와 수입산 장미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는 제시하지 않았음. 선행연구 검토 결과 권용덕(2016)에 따르면 수입산 장미 가격은 국내산 장미 가격의 83% 수준으로 국내산 장미는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계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내 도입 추정 가격(원/kg)	에콰도르	18,361	19,196	18,659	25,540	29,385	42,156	14,674
	콜롬비아	30,987	23,911	16,166	14,375	13,146	15,589	14,311

주: 수입단가, 환율, 관세율, 부대 비용(10%)을 가정하여 국내 도입 추정 가격을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수입단가, 검색일: 2024. 11. 20.; 하나은행 외 (<https://www.kebhana.com/>), 환율, 검색일: 2024. 11. 20.;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main/>), 관세율, 검색일: 2024. 11. 20.

○ 화훼류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화훼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송성환·김성훈(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훼류 생산 여건과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점은 지리적 여건이 경쟁국가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며, 이는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 화훼류의 품질향상과 품종 다양화 및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R&D 지원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측면에서는 수입 화훼류의 유통 및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국산 화훼류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6

## 요약 및 시사점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에콰도르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영향 전망에 필요한 에콰도르의 농업 생산과 교역 동향, 정책 관련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에콰도르의 농업과 화훼산업의 생산, 교역, 정책 관련 동향을 파악해 에콰도르 화훼산업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 2023년 10월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이 타결되어 공식 체결을 앞두고 있다. 에콰도르와 경제협력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에콰도르산 화훼품목 수입이 국내 화훼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환율 변동 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6. 15.).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 농업과 화훼산업 현황과 농업 및 화훼산업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에콰도르의 FTA 추진 동향과 한·에콰도르 농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에콰도르산 화훼품목들이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과 경쟁력을 검토하는 데 기반이 되는 연구자료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 에콰도르는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임업·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타 분야에 비해 작지만, 농업부문 고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에콰도르의 국내총생산은 2023년 기준 약 1,1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성장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다.
  - 2023년 기준 서비스 산업의 총생산액은 701억 달러로 63.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상품 제조 산업은 217억 달러로 19.4%를 차지한다.
  -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19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17.0%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148억 달러로 1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임업·어업 분야의 총생산액은 91억 달러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다.
  
- 에콰도르의 농작물 생산량은 다년생 작물의 경우 바나나, 사탕수수, 아프리카 팜 순으로 많았으며, 단년생 작물은 쌀, 건조 경질 옥수수, 감자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 에콰도르는 바나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생산량은 약 716만 톤으로 농업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탕수수는 625만 톤 아프리카 팜의 경우 약 205만 톤 생산되었다.
  - 에콰도르의 단년생 작물 중 주요 식량작물인 쌀은 약 164만 톤 생산되어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였고, 건조 경질 옥수수는 141만 톤, 그 뒤로 감자와 브로콜리가 각각 26만 톤, 약 20만 톤 생산되었다. 옥수수의 경우 연질 옥수수와 건조 연질 옥수수 등 용도별로 구분되어 생산되고 있다.
  
- 품목별·지역별로 살펴보면 에콰도르의 옥수수와 쌀은 주로 코스타 지역에, 감자와 보리 생산은 시에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옥수수의 경우, 코스타 지역 생산량이 132만 톤으로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93.3%에 해당하며 시에라 지역은 6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했다.

- 쌀의 경우, 코스타 지역 생산량이 163만 톤으로 전체 쌀 생산량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의 경우 코스타 지역에서만 1만 톤이 생산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자 생산은 시에라 지역이 26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리의 경우, 시에라 지역에서 8,517톤 생산되고 있다.

○ 에콰도르의 축산업은 지역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이며, 소와 돼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 2023년 기준 시에라 지역의 소 사육 두수는 204만 마리로 전체 소 사육 두수의 54.8%를 차지하며, 코스타 지역은 13만 마리로 전체의 36.6%, 아마존 지역은 32만 마리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 시에라 지역의 돼지 사육 두수는 67만 마리로 전체 돼지 사육 두수의 67.9%를 차지하며 코스타 지역은 28만 마리, 아마존 지역은 4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 에콰도르의 과수 재배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에콰도르의 주요 과수 작물인 바나나가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023년 기준 시에라 지역의 바나나 생산량은 690만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코스타 지역과 아마존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 파인애플과 아보카도는 대부분 시에라 지역에서 생산되며 망고의 경우 주로 코스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 에콰도르의 주요 농산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 전통적인 수출 주력 상품인 바나나는 연평균 2.1%씩 증가하여 2022년 33억 8,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농산물 수출의 45.7%를 차지했다.
- 코코아콩은 2018년 6억 6,5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 1,500만 달러로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쿠팡 바나나의 경우 2022년 1억 3,7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 품목별 전 세계 화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절화 수출액은 81억 유로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으며, 네덜란드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크고 에콰도르의 절화 수출 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2년 기준 절화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이며 네덜란드의 절화 수출액은 45억 유로로 세계 절화 수출액의 56.1%를 차지한다.

- 다음으로 절화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에콰도르이며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절화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0억 유로로 세계 절화 수출액의 12.0%를 차지했다.

○ 에콰도르의 화훼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장미, 델피니움, 헬리코니아 등의 화훼 작물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 2023년 에콰도르의 화훼 재배면적은 파종 기준 9,464ha(수확 기준 8,736ha)로 이중 온실 면적이 76.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화훼 생산량은 53.7억 본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온실에서 79.8% 생산되었으며 나머지 20.02%는 노지에서 생산되었다.

○ 에콰도르의 최근 5개년 화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에콰도르의 화훼 생산량은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화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2% 크게 증가하였다.

-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장미의 생산량은 2019년 이후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36.4억 본으로 나타났다.

- 기타 화훼(시즌성)는 2019년 이후 매년 38.9%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7.4% 증가하였다.

○ 2022년 에콰도르의 화훼(절화류) 수출액은 9억 7천만 유로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하

였으며 이는 2022년 전 세계 철화류 수출액의 12.0%를 차지한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화훼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로의 수출을 살펴보면, 2022년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각각 1천만 달러, 3백만 달러로 일본은 전년 대비 20.0% 증가한 반면, 중국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하였다.

○ 에콰도르의 농업정책은 에콰도르 농림축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ia: MAG)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2020-2030 국가농업 정책을 수립하였다.

○ 에콰도르의 화훼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화훼 산업 발전은 탄소배출 증가 등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와 에콰도르 화훼협회는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에콰도르의 2022년 전체 교역규모는 657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농식품 교역규모는 114억 달러로 전체 교역규모의 17.3%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74억 달러,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28.2%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4.9%, 14.8%씩 증가하고 있다.

○ 2022년 에콰도르의 전체 수출액은 327억 달러로 이 중 농식품 수출액은 74억 달러이며 전체 수출액의 22.7%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對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9백만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0.1% 수준에 불과하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주요 농식품 수출 상품은 바나나, 기타 유기물, 코코아두 등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농식품 수출액이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87.6%를 차지하며 이 중 바나나가 45.7%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전체 수입액은 330억 달러로 이 중 농식품 수입액은 40억 달러이며 전체 수입액의 12.1%를 차지한다.
  - 2022년 에콰도르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90만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다.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의 주요 농식품 수입 상품은 대두 부산물, 밀, 기타 사료 및 조제품 등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농식품 수입액이 농식품 전체 수입액의 71.7%를 차지한다.
  
- 2023년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체 교역규모는 약 9.6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농축산물의 교역규모는 1,536만 달러로 전체 교역규모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 2023년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1,376만 달러로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큰 무역 구조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2023년 우리나라의 에콰도르산 농축임산물 수입액은 1,4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14.9%씩 감소하고 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일(신선)이 가장 큰 비율로 수입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 과일(가공), 임산물 순으로 수입액이 크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에콰도르산 주요 수입 품목은 바나나, 커피 조제품, 기타 과실, 커피, 초콜릿 등으로 과일 및 가공식품 관련 품목이 수입액 기준으로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 에콰도르산 바나나는 2023년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86.8%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 바나나 수요 감소 및 베트남, 코스타리카, 페루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됨에 따라 연평균 15.8%씩 감소하고 있다.
  
- 2023년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농축임산물 수출액은 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이 농축임산물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산물, 채소, 과일

(가공)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 2023년 에콰도르로 수출된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6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4.7%씩 감소하고 있다. 가공식품 수출액이 농축임산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7.9%이다.

○ 2023년 우리나라의 對에콰도르 농축임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판지, 애견 사료, 홍삼 조제품, 기타 식물성유지 등으로 가공식품 및 임산물 관련 품목이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 2023년 對에콰도르 농축임산물 수출액의 15.5%를 차지하는 라면의 수출액은 1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5%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45.7%씩 증가하고 있다. 판지 수출액은 11만 달러로 2023년 전체 농축임산물 수출액의 14.1%를 차지한다.
- 홍삼 조제품은 지속적으로 에콰도르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홍삼 조제품 수출액은 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연평균 18.4%씩 증가하고 있다. 그 외 기타 음료, 인스턴트면 기타 파스타의 2023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채소 종자, 기타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의 에콰도르산 화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화훼 수입액(2017~23년 평균 기준)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에콰도르산 품목별 화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장미 수입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 화초, 안개초, 난초 등의 순이다.

- 2023년 에콰도르산 장미의 수입액은 3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6%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30.2%씩 감소하고 있고, 장미 수입 감소 및 기타 화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화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7.3%이다.
- 장미 다음으로 수입 비중이 큰 타 화초의 2023년 수입액은 2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7% 감소했으나, 2017년 이후 연평균 24.1%씩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타 화훼의 수입액 비중은 31.1%로 전년 대비 39.1% 감소했다.

-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에콰도르산 화훼 품목의 HS code 기준으로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화훼 품목은 5단계에서 15단계까지 관세가 철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비중이 가장 큰 장미의 현행 관세는 25%로 한·에콰도르 SECA 발효 이후 12단계(F)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고, 기타 화초의 현행 관세는 8%로 발효 이후 5단계(C)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 에콰도르는 화훼류 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화훼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로의 장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에콰도르산 장미와 우리나라가 장미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단가를 비교해 국내 도입 추정 가격을 산출해 본 결과,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관세율이 하락한 콜롬비아의 장미 국내 도입 추정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콰도르산 장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에콰도르 FTA 발효로 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에콰도르산 장미와 콜롬비아산 장미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원산지 간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화훼류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화훼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생산 측면에서 화훼류의 품질 향상과 품종 다양화 및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R&D 지원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측면에서는 수입 화훼류의 유통 및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국산 화훼류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권용덕(2016), “수입절화의 영향과 대책”, (사)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3-136, 농림축산식품부.
- 박지혜(2021), “‘식물기반’(Plant-based) 초콜릿, 인기급상승 확산되는 초콜릿”, aT 지구촌리포트, 115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송성환·김성훈(2021), “우리나라 화훼류의 수출 경쟁력 및 산업 내 무역 분석: 장미, 국화, 백합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8권 제1호: 106-132,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안규미(2019), “남미 화훼산업 발전경로와 동향”, 세계농업, 제232호: 53-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에콰도르 국가금융공사(2022), FICHA SECTORIAL CULTIVO DE FLORES SUBGERENCIA DE ANÁLISIS DE PRODUCTOS Y SERVICIOS, Corporacion Financiera Nacional B.P.
- 에콰도르 농업부(2021), Politica Nacional Agropecuaria 2020-2030.
- 에콰도르 화훼협회(2022), Nueva Versión 4.0 de los Documentos Normativos de la Certificación Flor Ecuador®.
- 최민정(2016),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85호: 169-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IPH(2023), INTERNATIONAL STATISTICS FLOWERS AND PLANTS 2023.
- Blackmore, I. et al.(2021), “Land degradation and the link to increased livelihood vulnerabilities among indigenous populations in the Andes of Ecuador”, Land Use Policy, 107, ELSEVIER.
- EC21 R&C(2024), 에콰도르 화훼산업 시장현황 및 정책 조사.
- Egas Yerovi, J. J., O. Shik & M. Inurritegui & C. P. De Salvo(2018), Análisis De Políticas Agropecuarias En Ecuador,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 ESPOFLORES(2024), REPORTE ESTADISTICO ANUAL 2023.
- Feldt, H.(2004), Study of Flower Label Program, Office of Social and Eco-standards, GTZ GmbH.
- Floverde Sustainable Flowers(2024), Paso a paso para la certificación en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
- Henderson, P.(1997), “Cocoa, finance and the state in Ecuador, 1895-1925”,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16(2): 169-186, Wiley.
- Staller, J. E.(1994), “Late Valdivia occupation in southern coastal El Oro province, Ecuador: excavations at the Early Formative period (3500-1500 B.C.) site of la Emerenciana”,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 Toledo, L., G. Salmoral & O. Viteri-Salazar(2023), “Rethinking Agricultural Policy in

Ecuador (1960-2020): Analysis Based on the Water-Energy-Food Security Nexus”, Sustainability 2023, 15(17), MDPI.

〈온라인 자료〉

- 에콰도르 농림축산부(<https://www.agricultura.gob.ec/>), 검색일: 2024. 8. 13.
- 에콰도르 통계청(<https://www.ecuadorencifras.gob.ec/estadisticas-agropecuarias-2/>), 검색일: 2024. 8. 29., 2024. 9. 3., 2024. 10. 22., 2024. 10. 23.
- 에콰도르 중앙은행(<https://www.bce.fin.ec/en/press-release/ecuadorean-economy-recorded-a-growth-of-2-4-in-2023>), 검색일: 2024. 8. 27.
- 하나은행 외(<https://www.kebhana.com/>), 환율, 검색일: 2024. 11. 20.
-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수입단가, 검색일: 2024. 11. 20.
- Brief Information Of Ecuador(<https://briefinformationofecuadorec.wordpress.com/natural-regions-of-ecuador/>), 검색일: 2024. 8. 6.
- Carbon Footprint International(<https://carbonfootprintinternational.com/>), 검색일: 2024. 8. 28.
- CIA(<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cuador/#people-and-society>), 검색일: 2024. 8. 20.
- Ecolabel Index(<https://www.ecolabelindex.com/ecolabels/?st=country,ec>), 검색일: 2024. 9. 2.
- FAOSTAT Database(<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4. 7. 17., 2024. 8. 20.
-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4. 7. 17., 2024. 8. 20., 2024. 8. 26.
- Flor Ecuador(<https://www.florecuador.com/flor-ecuador-certification>), 검색일: 2024. 9. 2.
- Florverde Sustainable Flowers(<https://formacionflorverde.wordpress.com/>), 검색일: 2024. 10. 4.
-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검색일: 2024. 8. 23., 2024. 8. 26.
-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검색일: 2024. 8. 29.
-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main/>), 관세율, 검색일: 2024. 11. 20.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https://ire.finanzas.gob.ec/>), 검색일: 2024. 8. 22.
- SCS Global Services(<https://www.scsglobalservices.com/services/veriflora-certified-sustainably-grown>), 검색일: 2024. 9. 19.
- Union Fleurs(<https://unionfleurs.org/>), 검색일: 2024. 9. 3.
- WEAREAQUACULTURE(<https://weareaquaculture.com/regions/south-america/ecuador-shrimp-industry-in-2023-more-export-volume-less-profits>), 검색일: 2024. 8. 22.
-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4. 8. 9., 2024. 8. 27.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6. 15.), “중남미 관문 에콰도르와 경제협력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10. 10.),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타결”.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무역통계자료, 검색일: 2024. 11. 20.

Borgen magazine(2024. 4. 17.), “Ecuador’s Flower Industry: \$1 Billion Sector Aids Rural Populations”.

Floral daily(2024. 4. 9.), “Ecuadorian floriculture experiences growth amid international challenges”.

Smithsonian(2011. 9. 6.), “Farming Like the Incas”.

# KREI

에콰도르의 농업 및  
화훼산업 동향

[www.krei.re.kr](http://www.krei.re.kr)



비매출/무료

955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 820-2211